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금주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줄어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더욱 적어지는 이 마지막 시기에 어찌하든 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금주의 말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데도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받으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7월 24일 (토) 제 1834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복음주의자, 이제는 너 마저?”

### CT, PRRI 2020년 종교인구조사에서 드러난 교인감소 대안 제시

미국에서 이제는 백인 복음주의자의 수마저 감소하고 있다. 공공종교연구소(Public Religion Research Institute)의 2020년 미국 종교인구조사(Census on American Religion)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의 14%만이 백인 복음주의자다. 이는 미국의 종교지형이 백인 복음주의자가 23%로 구성됐던 2006년 이후 급격한 감소세라고 말할 수 있다.

백인 복음주의의 감소와 함께 이번 조사에서는 더 이상 종교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종교학자들은 이 그룹을 '넌(None)'이라고 부르며, 그들은 미국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 이러한 통계는 연령

을 고려할 때 훨씬 더 굴곡이 심하게 발생한다. 간단히 말해서, 나이든 미국인은 젊은 미국인보다 훨씬 더 종교적인 반면, 밀레니얼 세대는 전통적인 종교의 틀에서 점점 더 이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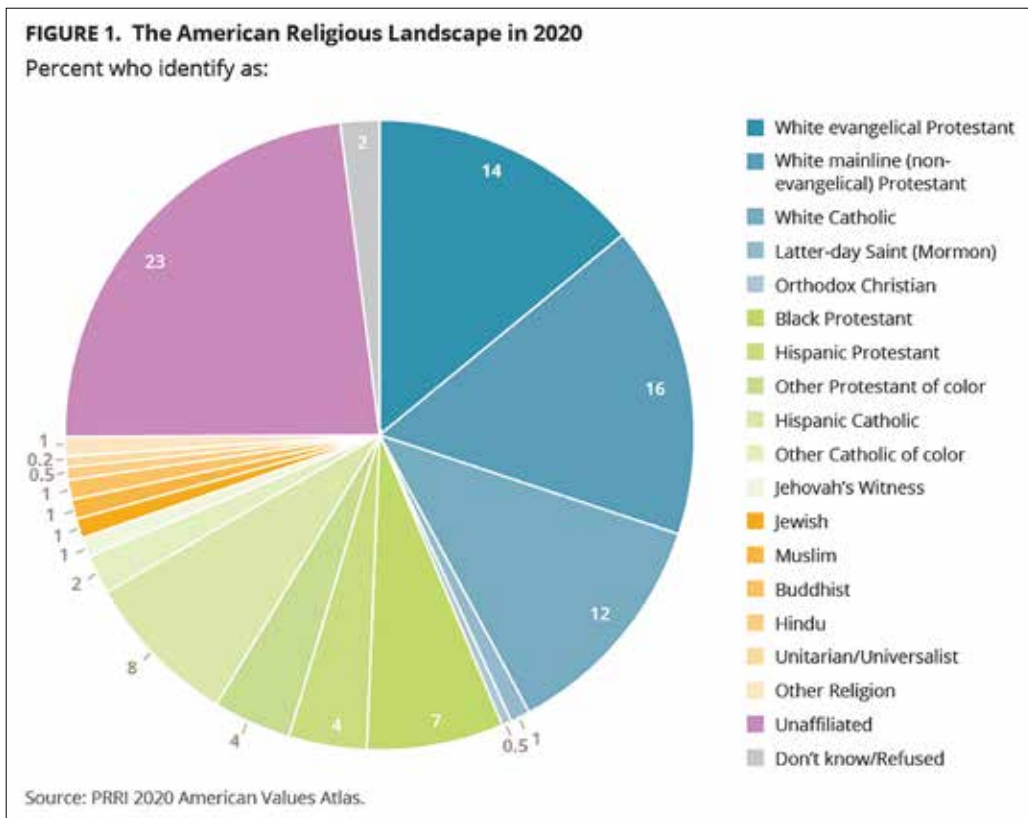
이번 연구는 중요하다고 크리스천리티투데이(CT)는 평가한다. 백인 복음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부는 신앙을 떠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젊은 백인 복음주의자들의 이탈이 문제다(Mainline Protestants Are Still Declining, But That's Not Good News for Evangelicals: Both traditions are losing out to the unaffiliated).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 종교에 대한 조사 데이터를 연구한 결과 가장 중요한 결론이 하나 있다면 매년 확립된 종교 전통에 동조하는 사람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종교자(Nones)라고도 하는 비종교인의 비율은 1970년대 초반 약 5%에서 2020년에는 최소 25%로 증가했다.

종교인구 통계는 제로섬 게임(zero-sum은 게임이나 경제 이론에서 여러 사람이 서로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모든 이익의 총합이 항상 제로 또는 그 상태를 말한다)이다. 한 그룹이 커지면 다른 그룹의 크기는 줄어들어야 한다. 따라서 '넌'의 증가는 전통적으로 거의 모든 교회에 나쁜 소식이다. 기독교인을 고단별로 분류하면 주류 개신교인들이 계속해서 상당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자체 회원 수에 따르면 주요 교단은 지난 10년 동안 15%, 25%, 심지어 40%까지 감소하고 있다. 복음주의적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의 숫자도 미끄러지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전통을 조사하면 그들의 교회가 어떻게 교인을 잃고 있는지에 대한 2가



지 다른 이야기를 볼 수 있으며, 미래에 미국 종교 환경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계획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1970년대에 주류 개신교단이 복음주의자들보다 훨씬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1975년에는 미국인의 30% 이상이 주류인 반면 약

21%는 복음주의자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선은 빠르게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1983년까지 미국에는 주류교단 교인보다 복음주의자가 더 많았다.

미국 종교의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주로 미국 문화에서 복음주의자들의 두드러진 활약에서 비롯됐다. 제리 파이프와 팻 로버슨과

같은 텔레비전 전도자의 부상은 종교 우파가 선거정치에서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한 것과 일치했다. 이 시점에서 '넌'은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상당수의 주류 개신교인들이 1980년대를 통해 복음주의자가 됐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3면으로 계속)



## 폭염 공포 세계적 확산세

### CNN, 과학 "대규모 사망" 경고, 코로나 다음에 다칠 계명 지적

폭염으로 인한 공포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등 북미와 러시아, 인도, 이라크 등에서 잇따라 폭염이 발생하고 있다. 대규모 인명 피해까지 초래하는 폭염은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CNN은 지난 4일 "전례 없는 더위가 수백 명을 숨지게 하고 도시를 파괴했다"며 "기후변화가 북반구를 태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Hundreds of deaths reported as cities urge residents to conserve power during ravaging heat wave). 캐나다는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큰 경우다. 지난달 25일부터 시작한 불볕더위에 서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고 산불이 150건 넘게 발생했다. 특히 소도시 리턴은 지난달 30일 기온이 49.6°C까지 치솟았다.

미국 북서부에서도 폭염에 따른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오리건주는 최근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95명 발생했고, 워싱턴주는 불볕더위와 관련된 사망자를 30여 명으로 집계했다. 북미 폭염의 원

인은 차고 더운 공기를 섞어주는 제트기류가 약화해 고기압이 정체되면서 생긴 '열돔(heat dome)'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는 지난달 23일 34.8°C를 기록해 6월 기온으로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시베리아의 농부들은 폭염으로 작물이 죽는 것을 막는 데 부심하고 있다.

인도 기상 당국은 지난달 30일 수도 뉴델리와 주변 도시들이 극심한 더위를 겪고 있다며 기온이 계속 40°C를 웃돌아 평소보다 7°C 정도 높다고 밝혔다.

지중해에서도 폭염 피해가 발생했다. 키프로스 정부는 4일 가뭄과 더위의 영향으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해 외국인 근로자 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4면으로 계속)



시론 이동진 목사 3면



푸른초장 최창섭 목사 4면



선교간증 이하루 목사 15면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교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 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jgbook.org | 323-737-7699, 800-669-0451  
1027 J.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 2021년 제6회 PGM 선교사집중훈련 admin@pgmusa.org | www.pgmusa.org

### 전문인선교사를 모집합니다!

- 훈련일정**
- 1차 (수료대상): 8월 23일(월)~9월 3일(금) 오후 7시 - 10시 (미국 동부시간)  
선교의제4모듈, PGM 7대 핵심가치 (성령충만중심, 디아스포라중심, Here & Now 중심, 전문인중심, 지역교회중심, 지역교회설립중심, 땅끝중심선교), 선교사례 (난민선교, 다민족교회, 전문인선교, 지역교회선교 실제, City Church, 웨일즈선교, 지역교회 차세대선교, 스페니시사역), 선교사의 경건 훈련, 팬데믹 시대 온라인선교, 타문화권 전도
  - 2차 (파송대상): 8월 23일(월)~9월 10일(금) 오후 7시 - 10시 (미국 동부시간)  
1차 훈련 및 선교사의 정체성, 영적전쟁, 선교지 전도전략, 내적자유, 인도네시아선교, 도심선교, 선교사의 행정훈련, 간증/나눔
- 훈련방법** 온라인 훈련 (Zoom, YouTube)  
**훈련대상** 스포츠, 교육, 의료, 미용, 캠퍼스, 영상, 어린이, VBS, 청소년, 금융, 건축사역 등의 전문인선교사  
**등록비** 개인 \$50 / 부부 \$80  
**등록마감** 8월 6일(금)



### 강사진

 호성기 목사 PGM 국제대표 필라 안디옥교회	 김기석 목사 PGM 부이사장 그린스보로개일장로교회	 김상돈 목사 PGM장학이사/미주본부장 과테말라한인교회	 박윤선 목사 PGM 정책이사 뉴욕 어원교회	 이상현 목사 PGM 정책이사 달리한인장로교회	 안사무엘 목사 PGM 실명총무	 김경중 목사 PGM 한국본부장
 양준연 목사 Antioch Spanish Church	 고대은 목사 Antioch All Nations Church	 이준섭 선교사 Antioch City Church	 이민우 목사 어스틴안디옥교회	 박사무엘 목사 선교장로교회	 이민재 선교사 PGM 한미훈련부장	 Jay Kim 선교사 PGM 영미훈련부장 Antioch EIM College
 김현영 선교사 PGM 순회강사선교사 (농축업/수의전문)	 이태후 선교사 PGM 선교사 (도시민민/금융전문)	 양용선 선교사 PGM 선교사 (그리스, 난민전문)	 조영태 선교사 PGM 유럽본부장 (웨일즈선교)	 함훈환 선교사 PGM 선교사 (인도네시아, 교회개혁)	 김데이빗 선교사 PGM 선교사 (미국, 컴퓨터역전문)	 김수잔 선교사 PGM 선교사 (미국, 컴퓨터역전문)
 박상수 선교사 PGM 부이사장 (교육/강사전문)	 정준영 선교사 PGM 선교사 (지역교회/강사전문)	 정석관 선교사 PGM 선교사 (웨일즈, 거리전도전문)	 John Park 선교사 PGM 선교사 (어린이/VBS전문)	 송경정 선교사 PGM 선교사 필라안디옥교회 차세대위원장	 박지은 전도사 필라안디옥교회 초등부	



발행인 칼럼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이길 수 없는 이유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수많은 사람을 질곡(桎梏)으로 몰아넣었던 공산주의는 아직 맹위(猛威)를 떨치는 듯하다. 그렇지 않으면 왜 공산주의를 겨냥한 미국 일본 호주 인도의 4자 협의체인 쿼드(Quad)가 더욱 강화되어 가겠는가. 아직도 공산주의는 세계의 이곳저곳을 넓히고 있고 좌파 이념에 몰든 지도자들과 세력들이 여전히 상당하다. 이 칼럼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제도를 논하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를 잠시 살펴 보려는 것이다. 유물론을 앞세워

사람을 위한다는 공산주의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많은 사람을 죽여 왔다. 거기에 무신론을 표방하는 공산주의의 기독교 핍박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로마의 기독교 박해를 넘어선 것이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궁극적으로 기독교를 이길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공산주의는 결코 기독교를 이길 수 없다.

공산주의는 사상이 대단히 견고한 것 같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자. 그들은 가장 중요한 신과 인간에 대한 이해부터 잘못하고 있다. 초월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타락에 대한 관점이 없다. 혁명을 통해 생산과 분배의 방식을 잘 바꾸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유토피아가 온다고 어리석게 믿고 있다. 인간의 죄와 구원에 관한 몰이해(沒理解)가 더해져 삶과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를 계속 장밋빛 낙관론으로 선동한다. 이 세상에서 주권적으로 활동하시는 초월적인 창조주를 섬기는 기독교를 사상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알파한 사상의 공산주의가 어찌 이길 수 있겠는가. 기독교의 세계관은 창조와 종말을 넘나들고 타락과 구원을 아우르는 진리 위에 세워졌기에 어떤 시대의 도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은 약속한다. “새 옷”을 입혀주겠다고.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경멸하고 타도했던 사회의 기독교를 비틀어 교활하게 행사하며 자신들만 새 옷을 입고 소위 인민(人民)에겐 한 옷도 제대로 못 입힐 경우가 많다. 어쩌다 새 옷을 입어도 사람이 바뀌지 않아 어색하고 우스꽝스럽다. 공산주의는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을 너무 많이 희망하고 있다. 그 거짓 희망에 스스로 속고 있고 남도 속이고 있다. 기독교는 외친다. “새사람”이 될 수 있다고. 그렇다. 새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바뀐다. 역사 안에서 그리고 역사를 넘어서까지 변화가 일어난다. 역사 속에서 “새 옷”을 입는 것을 넘어서서 역사 너머에서 “흰옷”을 입고 영원히 산다. 알량한 “새 옷”의 공산주의가 근원적인 “새 사람”의 기독교를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것은 자명(自明)하다.

공산주의자들이 때때로 기독교를 이기는 것 같다. 의기소침해지지 말자.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으니 공산주의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전혀 없고 기독교 안에는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믿을 이가 자기 자신 밖에 없다.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타인에 대한 의심이 난무하니 배반과 숙청과 죽임은 자연스러운 과정들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힘의 도우심을 간구한다. “기도 없는” 공산주의가 “기도하는” 기독교를 결코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세상이 연합해서 어떻게든 공산주의와 맞서려는데 진정한, 그리고 유일한 승리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만질 때 관계가 완성되고 자신의 존재도 인정된다!

TED, 신체접촉 금지 상태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는지 연구결과 보도

인간은 접촉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이는 단순히 주위환경을 파악하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인간의 피부에는 다른 사람의 접촉을 느끼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목적만을 가진, 이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완성하고 사회적 연결을 느끼며 자기 자신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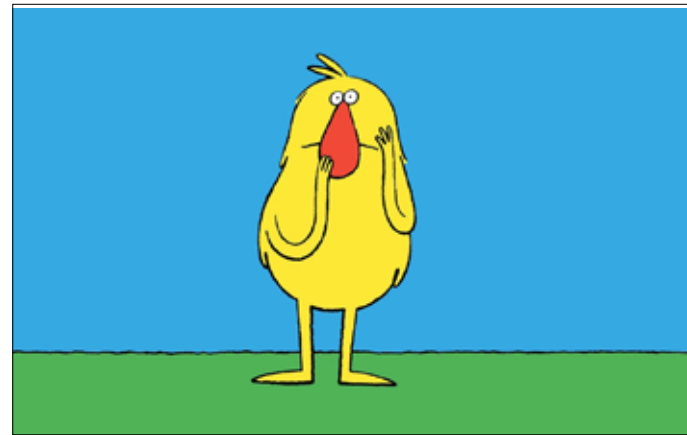
감각까지 갖게 만들어주는 신경다발이 있다. 그렇다면 서로를 만지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과학 전문지 'TED'는 말해준다(Humans are made to be touched-so what happens when we aren't?).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자, 뇌과학자 헬레나 위슬링은 바로 이런 질문을 갖게 됐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에서 그녀는 C-촉각신경(C tactile afferents, 또는 CT)으로 알려진 신경이 우리의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10년 넘게 연구하고 있다.

촉각신경은 손바닥과 발바닥을 제외한 인간의 모든 피부에 존재하며 촉각 신호를 감정적, 사회적 반응으로 바꾸어 준다. 위슬링은 예테보리xTED에서 이 신경이 세 가지 특징적 자극에 매우 민감하다고 말한

는데? 나는 받아들여졌어. 나는 안전해. 누군가가 나를 의지하고 있어. 특히 C-촉각신경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관장하는 뇌의 부위와도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감각을 오랫동안 느끼지 못하게 할 경우 커다란 문

친구에게 안긴 다음 더 크게 울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는 사람을 안을 때 팔로 그 사람을 두르며, 이때 안긴 이는 자신이 안전해졌다고 느낄 뿐 아니라 친밀감과 신뢰감을 모두 느끼게 되어 마음껏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체적 접촉은 단순히 감정적, 사회적 이득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곧,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신체적인 이득을 주며 자신의 삶에 전반적인 만족감을 준다. 사회적 접촉이 줄어들면 이 코로나시기에 우리는 신체접촉이 주는 이런 이득을 다른 방식을 통해 만들어줘야 한다. 아래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어려운 이 시기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신체접촉으로 안전감 친밀감 신뢰감으로 감정적 사회적 이득 고통 스트레스 감소로 신체적 이득, 삶에 전반적 만족감

친구와의 긴 포옹은 인류가 만들어온 인간관계의 기본과 같다. “이를 금지하는 것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바로 가벼운 접촉, 부드러운 움직임, 그리고 약 32도 정도의 온도다. 이는 바로 인간의 피부온도다. 즉, 이 신경은 다른 사람의 부드러운 접촉에 가장 민감하도록 돼있는 신경이라는 뜻이다.

제가 생각 수 있다고 원치는 말한다.

1. 샤워를 하거나 따뜻한 물을 담은 욕조에 들어간다.

뉴욕에 거주하는 심리학자가 이 원치도 여기에 동의한다. “촉각은 서로의 감정적 친밀감과 관련이 있으며, 인간은 서로의 신체적 거리를 곧 감정적 거리로 생각합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이를 잘 인지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코로나 이전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씩 다른 이들과 가벼운 접촉을 해왔었다.”

특히, 피부의 다른 감각 수용체들은 물리적 자극을 단순히 1차 체성감각 피질(primary somatosensory cortex)에 전달하지만 이 C-촉각신경은 신호를 뇌섬엽(insular cortex)에 전달한다. “이 부분은 감정의 균형을 관장하는 피질 내의 깊숙한 부분이다. 즉, 이 부분은 어렵게 느껴지는 감정을 전달한다. 가장 기분 좋은 느낌은 이런 기분을 만들어 줄 것이다. ‘음 괜찮

“나는 1년 이상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을 전혀 갖지 못한 친구들이나 환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악수 같은 것도 전혀 하지 못한 이들 말이죠. 그들은 정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포옹도 하지 못하는 이들은 사회적 외로움과 추위 비슷한 감각을 느낍니다. 이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 정신적 상처가 됩니다.” 원치는 모두가 그리워하는 포옹이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감정적으로 충만한 신체적 접촉이라고 말한다. “울고 있는 이를 안아주는 행동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그를 위로하기 위해 그를 안아주지만 그는

다른 사람이 당신을 만져주는 것과는 다르지만, 위슬링은 물이 피부표면을 느끼게 움직일 때 C-촉각신경이 자극된다고 말한다. 따뜻한 목욕은 근육을 풀어주어 긴장감을 줄여주는 장점도 있다.

2. 반려동물을 껴안거나 다른 사람과 산책한다.

“반려동물이 바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심박 수는 느려지며 혈압은 내려갑니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MD, a neurologist. Includes contact info: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 Flushing, NY 11354.

Advertisement for Bethesda Dental. Includes phone numbers: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Large advertisement for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Features the school logo, contact website www.rptseast.org, and details for the 2021 fall semester admission and graduation. Includes a table of degree programs and their durations.



“복음주의자, 이제는 너 마저?”

(1면에서 계속)

1980년대 후반까지 복음주의자들은 인구의 25-27%가 됐고, 주류교단 인구는 약 20%에 머물렀다. 1993년에 복음주의자들은 데이터에서 30% 미만으로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꾸준히 감소했다.

2000년과 2018년 사이에 복음주의자들 사이의 감소는 약 2%포인트로 비교적 완만했다. 주류교단은 같은 기간 동안 3배나 빠르게 감소해 2000년 16%에서 2018년 10%로 떨어졌다.

지난 몇 년 동안 주류 교단과 복음주의의 교인이 모두 감소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종교가 축소되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대체 없는 죽음을 통해서다. 나이 많은 교인들이 죽으면 그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라나지 않는 한 전통이 작아진다. 전통의 크기가 감소하는 다른 방법은 변질/저버림/이탈을 통하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자란 종교를 떠나 다른 종교 집단을 위해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사회조사(The General Social Survey)는 응답자들에게 그들이 성장한 교단과 현재 교단에 대해 물었다. 이 데이터를 사용하면 이 두 전통의 쇠퇴가 어떻게 변질/저버림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탈자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복음주의자로 자란 모든 사람이 그 전통을 고수한다면 그 규모는 얼마나 될까? 1973년에는 미국인의 약 20%가 복음주의자였으며 다른 4%는 이전부터 복음주의자였다. 2018년에 그 숫자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22%는 복음주의자이고 다른 4%는 이전 복음주의자였다. 본질적으로 변질/이탈은 기본적으로 동일했다.

1973년 주요 교단의 경우 28%가 지지자였고 다른 7%는 전통을 떠났다. 2018년에는 11%만이 주류 개신교 신자였지만 다른 6%는 성장해 주류 개신교단을 떠났다.

가장 최근의 GSS 데이터들

을 살펴보면 주류교단에서 성장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더 큰 문제가 있다. 성인이 됐을 때 절반 이상(55%)이 주류교단에 남았다. 그러나 거의 절반은 결국 종교와 무관하게 됐고, 또 다른 상당수가 복음주의자가 됐다.

복음주의자의 경우 자신이 자라난 신앙 전통에 남을 유지율이 70%로 훨씬 높지만, 종교 전환 또는 이탈의 동일한 기본 패턴이 존재한다. 복음주의적 이탈자들의 상당수는 계속해서 무종교를 주장한다. 복음주의 전통을 떠나는 사람들이 두 번째로 정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은 주류교단이다.

그러나 현재 주류 개신교인이 복음주의자가 될 확률은 복음주의자가 주류 전통을 떠나서 되돌아오는 것보다 2배나 더 높다. 숫자로 치자면, 주류교단 교인 3명이 복음주의 교인이 되고, 복음주의 교인 2명이 주류교단 교인이 되는 셈이다.

미국의 주류 교단 전통과 복음주의 전통이 모두 교인을 잃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 비대

칭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복음주의는 의심할 여지없이 1990년대 초 정점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주류교단 신자들의 유입과 나이 든 복음주의 교인의 죽음을 통한 손실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을 만큼 젊은 가족의 유입에 힘입어 약간의 정체 상태에 이르렀다.

주류교단의 하락세도 최근 다소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의 숫자가 다시 줄어들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들이 계속해서 전통에서 이탈하고, 교인의 평균연령이 증가하고 전통교단이 신학적 입장에 따른 출혈을 일으키면서 주류 개신교인들의 감소세가 계속 이어질 우려의 원인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복음주의는 이전 주류 개신교인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여전히 이득을 얻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주류 개신교인 전체 수가 훨씬 더 적어짐에 따라 새 교인유입의 흐름은 계속 줄어들 것이다.



시론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혜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하나님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셨다. 그 지혜는 인간들에게 경험과 학습과정을 통과하면서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마침내 인간은 인류에게 '인공지능'을 주었다. 그리고 인간이 인간에게 선물한 지능이 인간을 이기는 세상이 되었다.

인간이 인간에게 선물한 '인공지능(AI)은 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적인 지능)의 약자로서 인간이 가진 지적능력을 컴퓨터로 구현해내는 과학 기술이다. AI는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기능을 넘어 이제 감성적이고 창의적인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장착(?)함으로써, 몇 년 전 관심이 집중되었던 알파고(Alpha Go)와 인간의 바둑대결처럼 기술적으로는 인간을 이미 곳곳에서 추월하고 있다.

장년 이전 세대들은 사회과목에서 '1차 산업혁명'을 배웠던 기억을 갖고 있다. 수천 년 인류역사가 급속하게 바뀌는 첫걸음이 되었던 1차 산업혁명의 상징은 증기기관차였다. 발품을 팔아야 이동해갈 수 있거나, 우마차를 타고 다니던 인간들은 증기를 이용해 달리는 기차를 발명해내었고, 전기에너지로 대 표되는 2차 산업혁명과 컴퓨터의 등장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에 이르기 까지 고속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면서 사람보다 더 능력 있고 힘이 있는 AI 앞에 선 인간들은 고개를 숙이고 '그대 앞에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를 노래하게 만들었다.

본격적으로 AI시대가 열린 것은 10년 전 2011년이었다. ABC방송의 퀴즈쇼에 등장한 IBM회사의 AI 슈퍼 컴퓨터 '왓슨(Watson)'은 두 명의 챔피언을 누르고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제시하면서 우승을 차지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난 17일 뉴욕타임스는 "왓슨의 원대한 비전은 이미 사라졌고 AI에 대한 과장과 오만함을 일깨워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다"고 진단 평가하는 기사를 실었다. 한편 지난 11일에는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이 첫 민간 우주관광 비행을 성공했다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인간지능이 평범한 지구인들의 우주여행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는 설렘을 안겨 주었다.

작년 초 수술대에 누웠을 때 나의 수술닥터는 유리창 저편에서 컴퓨터 화면을 통해 내 몸에 들여보낸 기기들과 대화(?)하며 몇 시간의 수술을 진행했다. 환자인 나의 모든 병력 데이터를 손에 넣은 로봇은 인간 외과닥터의 손보다 더 세밀한 터치로 순간반응과 정교한 판단을 하면서 몇 시간의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른바 로봇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최근 뉴욕타임스는 "여러 대 행병원에 이어 최근 휴스턴 MD앤더슨 병원도 지난 4년간 투자한 6천만 달러의 개혁시도가 실패했음을 밝혔다"는 기사를 통해 AI의 발전이 순조롭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물론 이 기사는 '실패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AI는 진보하고 있고 결국 AI를 이용한 시장은 더욱 활성화되어 나갈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덧붙이면서 결국 인류가 언젠가는 AI의 지배를 예견하고 있다.

그러면 이 놀라운 '인공적인 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에 인류의 미래를 맡기면 되는 것인가? 인류는 어떤 미래에도 안전하고 평안할 것인가? AI는 이 복잡하고, 위대한 지구촌 인류에게 확실한 희망이 될 것인가?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이 합체되면 드디어 인류는 안심하고 미래를 기대해도 좋은 것인가? 인류역사상 가장 발전한 오늘 전 세계는 육안으로 볼 수도 없는 바이러스 앞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과연 AI라는 최첨단지능의 우산 아래 숨으면 안전한 미래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 암담한 인류 앞에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사실이다. 그 지혜는 인간지능의 개발이 아니라 조물주(造物主)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지능을 넘어서는 AI를 개발했다고 우쭐떨 때에도 인류를 향한 그분의 긍휼하심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해야 한다. 설사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해 하늘까지 닿는 놀라운 능력을 갖춘다 해도 하나님은 AI와 대화하지 않으신다. 미래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과만 대화하신다. 그 분은 인간에게만 당신을 아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잠9:10)' 세상의 어떤 요동함 속에서도 이 말씀을 가슴팍에 새기고 걸어갈 때 인류는 오늘을 헤쳐 나갈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djlee7777@gmail.com

만질 때 관계가 완성되고...

(2면에서 계속)

반려동물은 당신에게 의지하며 당신이 동물을 위해 무언가를 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관계의 충족에도 도움이 된다.

코로나시기에 반려동물을 입양한 이들이 크게 늘었다. 한 연구는 정상적인 사회적 인간관계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동물과의 관계가 치료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도 했다.

3. 누군가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집중한다. 설사 그 사람과 전혀 접촉할 수 없다 하더라도...

신체 접촉이 불가능할 경우 우리는 이를 대신할 것을 찾아야 한다. "실제로 상대를 만난다면 상대의 눈을 쳐다보는 것도 좋습니다. 신체접

촉은 '나는 당신을 보고 당신의 존재를 느낍니다'는 말을 하는 것이며, 서로를 쳐다보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고립된, 혹은 외로운 이와 대화할 때 더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대화가 신체 접촉만큼의 자극은 되지 못하지만 깊이 있는 대화 역시 우리의 소속감과 친밀감을 자극해준다.

4. 외로운 이들과는 "가벼운 인사(check in)" 대신 보다 의미 있는 대화를 시도한다.

트위터 세상의 모든 이들은 우리에게 짝이 없는 친구들에게 가벼운 인사를 하라고 권하는 듯 하다. 하지만 그럴로 충분할까?

"가벼운 인사는 그저 체크박스를 클릭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곧, 전혀 충분

하지 않다. 코로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좌절을 안겨주고 있지만 친구 가족들과 가질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의 부족이라는 면에서 짝이 없는 이들이나 홀로 사는 노인들, 그리고 포용도 해서는 안 되는 고위험군 환자들은 특별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가벼운 인사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진짜 소통을 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모두 화상통화를 피곤하게 느낀다면 각자 산책을 하면서 전화통화를 하는 것도 좋다.

만약 상대방이 지금의 이 코로나시기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고 말한다면, 지금 이들이 신체접촉의 결여 때문에 매우 큰 감정적 상처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다른 이들은 이해하기 힘든 감정이다. 당신이 상대와 똑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어떤 기분인지 알아"와 같은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우리는 무언가를 만질 때, 비로소 그 상대가 실제 존재하는 것으로 느끼게 됩니다. 신체접촉이 중

요한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인들과 함께 만드는 사회적 세상 속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곧 모두가 백신을 맞겠지만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우리의 사회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우리는 예전처럼 악수를 하게 될까? 동료와 포옹을 할 수 있을까?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영국에서 이뤄진 조사에서 54%의 사람들은 예전보다 신체적 접촉이 크게 줄었다고 느꼈다. 사람들은 예전의 세상으로 가능한 한 빨리 돌아가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원치는 코로나가 우리의 신체 접촉에 대한 생각 자체를 바꿀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한때 친밀감, 친근감, 중요성 등을 의미했던 행동이 이제 위험하고 피해야 할 행동이 됐습니다. 포옹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한동안은 포옹에 대한 거부감을 사람들이 느낄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에서 빠져나오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편집국장: 유원정
LA지사장: 이성자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주님의영광교회 사역자 청빙광고
엘에이 다운타운에 있는 주님의영광교회(담임목사 신승훈) 장년부서에서 교회를 사랑으로 섬길 사역자를 찾습니다.
자격 요건: 1.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 2. 주님을 사랑하여 헌신하며 충성된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본인과 가족 사진 첨부) 2. 신앙 간증 (목회 간증 포함) 3.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4. 설교 동영상 2개 (가급적 최근 것) 5. 추천서 2 통 이상 (현재/이전 교회 담임 목사 등)
접수마감: 2021년 7월 30일
제출처: 주님의영광교회(Attn. 김인찬 목사) Glory Church of Jesus Christ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el. 213-749-4500 inhitime5367@gmail.com

휴스턴 한인교회
담임목사 청빙광고
텍사스주의 휴스턴시에 위치한 저희 휴스턴 한인교회(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에서는 제 9대 담임 목사님을 다음과 같이 청빙합니다.
1. 자격요건: 1) 정규대학,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목사 2) 이민교회에서 5년이상 담임목사 경력 있으신 분 3)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 소지자 4) 이중 언어(한국어, 영어) 가능한 분
2. 제출서류: 1) 본인 및 사모의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가족사진 첨부) 2) 목회 철학/비전 계획서 및 간증서 3) 6개월 이내에 행한 설교 영상 2외분 4) 대학교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5) 목사 안수 증명서 6) 마지막 출석교회 담임목사의 추천서(추천인 연락처 기재)
3. 지원서류 접수 안내: 1) 제출방법: 서류는 청빙위원회 이메일 주소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청빙위원회 email address : kcch2019@gmail.com 2) 설교 CD는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교회 우편 주소: Korean Christian Church of Houston c/o Senior Pastor Nominating Committee 10410 Clay Rd, Houston, TX 77041
3) 본 교회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심사 후 개별통지 하겠습니다. 4) 제출된 서류는 청빙목적외로만 사용될 것이며 일체 반환되지 않음 5) 지원 관련 문의는 상기 이메일 주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 멈춤의 미

언젠가 제임스 어거스틴이 란 분이 다음과 같은 글을 쓴 것을 읽었습니다. "나의 큰 딸인 안나가 태어난 지 15개월 정도 되었을 때 나와 내 아내는 여름 청소년 집회 장소에 있었다. 나의 아

내는 집회를 마친 후 안나를 데리고 숙소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안나는 계속해서 가는 길을 멈추었고 인도 위에 놓는 것이었다. 아내는 안나를 일으켜 걸어가게 하였지만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시멘트 인도 위

에 놓는 것이었다. 그래서 아내는 짜증이 좀 나기 시작해서 그 자리에 서서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무슨 일인지 안나와 함께 길에 누워 위를 보게 되었다. 그때 내 아내는 그녀가 평생 볼 수 없었던 여름 하늘에 펼쳐지는 별들의 대 광경을 보게 되었다. 우리는 너무 정해진 목적을 위해서만 바쁘게 살아가기에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사는 때가 많다. 가끔 우리가 가는 길을 멈추고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살핀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색다른 아름다운 것이나 사랑과 애정의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지난해 한창 코로나19이 기승을 부릴 때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의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지

3년이 되도록 동네를 잘 몰라 가는 길로만 차를 운전하여 다녔었습니다. 그러니 동네에 대해 잘 몰라 정이 들지 않고 썰렁하고 삭막해 보이니까 그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으로 아무 데도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운동 삼아 동네를 집사람과 함께 걸어서 돌게 되었습니다. 동네 주변을 걸어서 다녀 보니 못 보던 것을 보고 집마다 모양이 다르고 뜰에 심어 놓은 꽃들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동네가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춘 상태에서 동네 사람들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걷기 위해 나왔고 그들과 마주치며 다정한 인사를 나누면서 다니니 꽤 살만한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목적지를 한 슈퍼마켓을 정하여 걸었기 때문에 몇 달 동안 슈퍼마켓

구경도 정말 잘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구멍가게를 가는 것이 취미였는데 그동안 가지 못하였던 마켓을 가니 너무나 좋았던 것입니다. 저는 마켓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신기하게 보여 자세히 보기도 하고 사서 맛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재료를 사다가 해 먹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내다 보니 동네가 정이 들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모든 것이 거의 다 멈추었을 때 이사한 지 3년 만에 동네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나 나를 위한 좋은 곳으로 이사 오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느끼며 감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을 하며 우리 인생에 일이 생겨 멈추는 시간은 쉽지가 않으나

간이고 그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혹시 어려운 순간을 지나면서 모든 것이 멈추어 있다면 절망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기 위함임을 생각하며 자세히 주변을 살폈으면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느끼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멈춤의 시간이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멈춤은 후퇴가 아니고 전진을 위한 귀한 침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멈춤을 즐길 수도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david2lord@hotmail.com



최창섭 목사

(뉴욕에벤에셀선교회)

집 엘리엇(Jim Eliot)은 포틀랜드 오래된 주에서 출생하여 시카고 휘튼대학을 졸업하고 1956년에 28세의 나이로 그의 친구 4명과 함께 남미의 에콰도르로 선교를 떠났다. 그들이 간 곳은 식인종인 아우카족들이 사는 곳이었다. 그런데 수개월 동안 그들의 소식이 끊겼다. 집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들 모두 아우카족에 의해 창과 도끼로 잔인하게 살해되었다. 미국정부는 그곳에 수색대를 파견하여 그들의 시신과 유골들을 발견했고, 그 참상이 전 세계에 전해졌고,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되었다.

나눔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죄악 된 세상에서 불러내시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다. 교회는 생명공동체로서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 안디옥교회는 예루살렘교회에 일어난 신앙의 압박으로 인해 흩어진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공동목회자로 바나바와 바울이 섬겼다. 성경께서는 두 사람을 선교사

으로 연합하여 교회를 섬겼다. 그러면 어떻게 다양한 혈통, 언어, 배경을 가진 자들이 하나 되어 함께 일할 수 있었겠나? 같은 비전(영혼구원)을 가지고 형제적식을 가지고 사역했으며, 자기주장,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주님의 섬김을 받받아 겸손하게 섬겼다. 이들 모두 복음의 제사장들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 라틴어로 제사장을 "폰티팩스"라 한다. "다리 놓는 사람"이란 뜻이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

우라. 이들은 안디옥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지도자들이었다. 당시 교회적인 상황으로 볼 때 이들을 낯선 이방 땅에 선교사로 보내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지시였다. 그런데 성경께서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하셨다. 즉 하나님의 더 큰 일을 위하여 그들 두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셨다. 사실, 1-3차 천도여행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지역에 복음이 확산되는 역사가 있어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가 마련되었다. ②금식하며 기도하였다. 유럽 여기서 안디옥교회의 교회 운영 방식을 찾아볼 수 있다. 보통은 교회의 회의를 통해서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 교회는 어렵고 힘든 결정을 회의의 방식보다는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기를 바랐다.

일꾼을 키우는 교회에 미래가 있다. 다음세대를 위해 일꾼을 발굴하고 일을 위임해 주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다. "당년에 거두려거든 곡식을 심고, 심년에 거두려거든 나무를 심고, 백년에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으라." 미래를 향한 가장 확실한 일은 심고 키우는 일이다. 그중에 사람을 키우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다. 수천 년의 인간 역사를 살펴보면 그 역사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물이 끊어진 시대는 암흑의 시대였고 방향의 역사였다. 모세는 후계자를 키워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여 모든 일을 맡겼다(신34:9). 그가 키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루는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 그러나 정작 여호수아는 자기의 후계자를 키우지 않았다.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하지 않았

전에 나오는 약 70여명의 일꾼들은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헌신적인 일꾼들이었다. 미래가 있는 교회는 다음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일꾼들을 찾아 양육하여 사역을 위임해 주어야 한다. 마가요한은 예수님이 로마군인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친 자였다. 그 후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1차 천도 여행 때 따라 나섰다가 너무 힘들어 중도에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바울을 크게 실망시킨 자였다. 그런데 행13:4,13에 보면 두 사람의 선교수행자가 되었다. 일꾼을 키우다보면 실망할 때가 많다. 그러나 실수한 사람도 기대 붙잡아 주고 격려해 주고 기쁘게 주면 언젠가는 바로 서게 된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골 4:10) 그는 후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며 고난도 받았으며 후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가복음을 기록했다. 교회의 일꾼이 되기 원하는 자들은 예배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성숙한 인격,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 훈련받지 않고는 좋은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 없다.

##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사도행전 13장 1-3절

집 엘리엇이 순교한지 1년 후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Elisabeth Eliot)이 간호사 훈련을 받고 남편이 못다 한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 잔인한 식인종인 아우카족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 5년 동안 온갖 사랑을 다 쏟아 쏟았다. 아우카족들은 그녀를 "하얀 천사"(White Angel)라 불렀다.

로 파송하여 세계선교의 전초기지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 본문을 통해 그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자.

리를 만드는 자들이다.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는 친히 "Bridge Builder" 가 되셨다. 복음의 제사장, 교회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각자, 교회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인종을 초월하여 사람을 세우고 연합하여 영혼의 다리를 만들어 주는 사명을 감당하자.

사람의 생각으로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는 것이 합당치 않게 여겼으나 하나님의 생각, 뜻은 그들 두 사람을 이방선교의 일꾼으로 쓰시기를 원하셨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적중하여 이방선교의 큰일을 이뤘다. 교회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거나 복잡한 문제가 있을 때면 회의를 보자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자. 그럴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범사가 아름답게 되며, 만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4. 선교지향적인 교회가 될 때 주님은 일꾼을 더해 주신다

예루살렘교회가 오순절 성령충만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일꾼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안디옥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후부터 복음이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확장되어 나갔다.

1. 다양한 혈통의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사역했다(행 13:1) 안디옥교회의 인물들 중에는 순수한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구약 율법에 능통한 바울, 레위족 출신인 바나바가 있었고, 헤롯의 젓등생 마나옌은 왕궁에서 자라서 왕족의 혈통을 가진 귀족임에도 왕궁의 모든 특혜를 다 포기하고 안디옥교회에 출석하면서 복음을 가르친 교사였고, 시므온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으로(구레네 시몬, 눅23:26) 복음을 가르친 교사로, 로마문화권의 영향을 받은 구레네 사람인 루기오도 아프리카인으로 충실한 교사였다. 안디옥교회는 민족과 인종, 문화로 초월하여 교회를 이루고 섬겼다. 그리고 이들 모두 선지자와 교사로 말씀사역에 헌신하였고, 그 결과 생동력이 넘치는 교회로 성장하였고, 한마음

2.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들은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였다(행 13:2-3) 1)금식하며 예배를 드리던 중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의 가장 아름다운 신앙행위인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다. 특히, 금식하며 예배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주의 음성 듣지 않고 교회 일을 한다는 것, 선교한다는 것은 주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다. 2)구체적인 성령님의 지시는 무엇이었나? ①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

3.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①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

3. 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①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

결론 지금의 1세대들은 자기 자신의 복만 구하는 신앙생활에서 탈피하여 다음 세대를 책임질 일꾼들을 세워주어야 하고, 후원해주어야 하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역을 위임해 주어야 한다. 특별히 눈을 들어 복음의 비전을 펼쳐 나가며 주님의 꿈인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초기지로써의 역할을 잘 감당해가는 교회로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아멘. josephchoi0408@Yahoo.com

인용, "코로나19 다음에 폭염이 세계적으로 대규모 사망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AFP 통신은 지난달 23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폭염 공포 세계적 확산세 (1면에서 계속) 산림부 관계자는 "키프로스 역사상 최악의 산불"이라고 말했다. 중동의 이라크도 최근 폭

염으로 수도 바그다드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지난 1일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일본에서 발생한 산사태도 기후변화와 무관치 않다. 지난 3일 일본 시즈오카 현에서 폭우

로 인한 산사태로 2명이 숨지고 약 20명이 실종됐다. 전문가들은 기록적인 폭우가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과학자들은 기후변화가 계속된다면 폭염 사태는 자주 발생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영국 기상학자 니코스크리스티디스는 캐나다와 미국의 폭염은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가 없었다면 수만 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온실가

스 배출이 계속된다면 이번 폭염 사태는 2100년까지 매년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FP 통신은 지난달 23일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인용, "코로나19 다음에 폭염이 세계적으로 대규모 사망을 부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POST-TRUTH, 탈진리'의 시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교회를 섬기는 장로이면서 학자로서도 명망이 있는 강영안 교수가 강의한 내용의 일부이다. 마지막 종말시대, 신(新) 사사시대를 살아가면서 각각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즐겨하는 이 시대를 잘 지적하는 내용이 있어서 옮겨 본다. 코로나 이후 시대에 목회자들이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 강의였다. 그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이 시대를 설명했다.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가치관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세속주의(Secularism)'이다. 두 번째는 '다원주의(Pluralism)'에 대한 논설이었다. 앞선 두 가지의 관점은 익숙한 것이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논점이 가장 눈에 띄는 구석이였다. 이를 그대로 옮겨본다.

"세 번째 키워드는 '관점주의(Perspectivism)'이다. 너는 그 관점으로 보고 나는 이 관점으로 본다. 너의 진리가 나에게는

스'의 시대를 지나면서 대안을 말했다. 그것은 진리를 분별하여 가려낼 수 있는 성도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나 아니냐'의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분별력 있을 성도로 양육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의 사명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마디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구조 속에서 이런 사람들의 주장도 들어보고 그 반대의 주장도 들어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성도로 성장 양육해야 한다는 의미를 언급한 것이다.

감히 평가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만 굉장히 훌륭한 관점을 말씀하는 강의였다고 느껴졌다. 시대를 읽고 분석하는 철학자의 지성이 느껴지는 강의였다. 그러나 여러모로 분석의 관점에는 동의가 되면서도 강장로님이 대안이라고 하는 결론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워낙 사람 상호간에 신뢰를 쌓지 못하기에 나타난 현상인지, 대화가운

설교를 들어도 이것을 단순히 목사님의 성경에 대한 견해(Just his opinion)로 상대화시켜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것이다. 결국 말씀이 주는 신앙의 유익들을 누리지 못하고 오랜 시간 방황하는 것을 보았다. 결국 팩트와 함께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아주 중요한 논거의 하나가 바로 '전제'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전제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진영의 논리와 다른 것이다. 진영의 논리가 단순한 어린아이의 '편 가르기 싸움' 같은 내용이라면 여기서 전제라는 것은 궁극적인 인생의 유익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 대한 전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전제에 대한 구별된 생각 없이 그저 팩트만을 구별하려 들고 이런 저런 의견과 주장들을 듣다보면 특별히 교회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행해진다 하면 아주 최악의 상황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된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시끄러운 조용히 성도들이 떠나는 곳이다. 많은 회의를 통해 회의

목사님의 아주 선명한 논리를 소개하면서 팩트와 분별의 문체에 대한 '팁'을 얻고자 한다.

김 목사님의 상황과 배경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두루 두루 화평과 인정을 도모하는(?) 답에 동의한다. 그것이 아니다. 그것 또한 변증의 원리의 한부분인 제3자의 것을 쉬 취하는 언어의 기술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본인이 동의하는 부분은 김 목사님이 거친 만주벌판에서 선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모든 논리와 생각을 사로잡아 궁극적으로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의 표준,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맥락을 학자이면서도 목사로서 선명하게 지적했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팩트를 넘어서서, 팩트의 분별의 능력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모든 분란, 나쁜, 갈등을 치료하면서 가져야 될 전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너무 필요 적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본다.

"더욱이 그리스도인은 '팩트'라는 사실적인 측면을 넘어 진실이라는 또 다른 관점을 늘 가져야 한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영국에서 신대륙인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이 땅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기 위해 왔다는 말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 아버의 이희은

A: 영국에서 온 청교도들은 두 종류인데 분리주의자와 비분리주의자들입니다. 분리주의자들은 영국 국교회가 미신적인 로마천주교회의 예배와 계급적인 교회정치를 함으로 영국국교회를 부정하여 새 교회를 세우고는 자기들끼리 나와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들이 분리주의자들(Separatist)들입니다. 그들은 영국 국교회가 너무 부패해 개혁은 불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을 떠나 네덜란드로 갔다가 다시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미국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한 102명의 청교도들입니다. 한홍 목사가 쓴 '종교개혁 히스토리'를 보면 그들은 배안에서 그들이 서명한 메이플라워 서약(Mayflower Compact, 1620)은 "하나님을 섬기는 국민이 정치적 권위의 근본"임을 명시하는 최초의 문서화된 법이었습니다. 문서에 서명한 40명의 남자들 중엔 하인들과 하류계급의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었기에 만민이 평등한 민주주의 국가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국민이 선거라는 참정권을 통해 자발적으로 뽑는 공권력에 의한 사회로서 학자들은 이 서약을 미국독립선언문, 오리진널 미국 국가의 청사진이라고 평가합니다(p.98).

### "교회와 정치가 하나 되는 모델 크리스천국가" 꿈꿔

비분리주의자들은 같은 청교도이면서도 영국 국교회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교회 안에 남아 개혁하겠다는 청교도들인데 그들은 영국 청교도가 신대륙에 간 지 10년 후에 미국으로 대거 이민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존 윈스롭(John Winthrop 1587-1649)인데 그는 계시록적 종말론에 입각하여 영국국교회가 이런 식으로 부패하면 하나님이 종말론적 재앙을 내릴 것이라 생각하여 이를 피하기 위해 순결한 신앙을 가진 청교도들을 데리고 신대륙에 왔습니다. 1630년 700여명을 거느리고 매사추세츠로 갔는데 13년 뒤에는 2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존 윈스롭은 조지 워싱턴 이전에 미국의 실질적인 대통령으로 불렸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하나님이 광야와 같은 신대륙으로 가기를 원하신다는 사명감으로 불타서 마태복음 5:14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영어성경을 보면 "언덕위의 도시(a city on a hill)"입니다. 성경대로 다스려지는 사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법정이 제정되고 집행될 때 말씀으로 다스리는 공의와 평등의 사회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언덕위의 도시"인 새 예루살렘 같은 기독교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법으로 삼고 거듭난 신자들이 참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Holy Commonwealth, Bibliocracy) 건설코자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회와 정치가 하나 되는 모델 크리스천 국가"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초가 되어 미국의 정치인들은 목사님 설교처럼 말하고 목사님들은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전통이 미국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 탈진실(Post-Truth)의 시대를 살아가는 전제

- 신(新) 사사시대, 진영논리, 사랑과 진실

진리가 아니다. 각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 모든 사실은 해석된 사실일 뿐이다. 각자의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것도 이런 관점주의의 영향이다. 이런 관점주의가 최근에 포스트 트루스(POST-TRUTH)라는 단어로 나타난다.

'포스트 트루스/탈진실'은 무엇이 참인가 거짓인가 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편이 참이면 참이고 저쪽 편이 참이라고 하면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포스트 트루스'의 부산물이 바로 '가짜 뉴스(Fake News)'이다. 무엇이 사실이냐? 무엇이 참이냐? 에는 별 관심이 없고, 내가 좋아하는 내 편에 의한 뉴스인가 아닌가에 관심이 더 많다."

탈진리 혹은 저자가 말하는 언어대로 탈진실의 시대로 번역될 수 있는 'POST-TRUTH'라는 말이 느낌이 다가왔다. 달리 표현하면 진영논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진리의 판단기제 없이 내편이면 옳고 다른 쪽 편이면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는 그런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다.

결국 진리에 의해 삶의 내용이 해석되고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친소관계와 이해득실(利害得失)에 의해서 삶의 내용과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진리에 대한 분별력

강영안 교수는 '포스트 트루

데 아주 자주 등장하는 질문중의 하나이다. '팩트가 뭐냐?'는 질문이다. 팩트를 확인한 다음에 펼 하자는 것이다.

쉽게 누가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잘 믿어주지 않는다. 먼저 사실인가를 확인하고서, 다음에 이야기를 진행하자는 것이다. 상당히 의미 있는 어조이지만 실제 나타난 현상들을 보면 별로 유익함이 없다.

처음에는 팩트만 확인하자는 것이, 이제는 '당신이 말하는 그 팩트가 과연 참인가? 거짓인가?'에 대해서도 또 다른 부가적인 논쟁을 이끌어오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골치 아픈 시대의 흐름이다.

전제, 그리스도인, 성경

이러한 복잡 분주한 세상이운데서 적절한 팩트를 분별하고 실제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적인 훈련 혹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은 '전제'라고 하는 안경을 잘 쓰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고 하면 그의 신앙생활에 나타난 은혜를 부여잡고 영적인 감격과 기쁨, 성령의 음성에 대한 순종을 통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대 전제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것이다. 만약 그러한 생각들이 정리되고 준비되지 못하면 스스로는 자유를 말할지 몰라도 실제 그의 삶은 우주공간에서나 경험하는 무중력 상태의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감이 생겨서 교회를 가나안(?) 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진리자체의 팩트에 앞서는 성경적인 전제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이 삶의 유익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 여겨진다.

팩트를 넘어서는 진실, 분별과 사랑으로

그러면 탈진리의 시대에 어떻게 논쟁과 논거를 적절히 조정하며 주의 교회와 복음에 유익함을 끼치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최근 한국 뉴스가운데 이런 관점에 의한 실제적인 논쟁거리가 등장했다. 생각하면 이해될 수 있고 전문가의 의견에 대해 동의를 하면 될 것을, 거기에 정치가 개입되니 아주 어린아이 말싸움 같은 일이 나타난 것이다. 누가 들어도 상대방의 관점에서 들어주면 될 것을 끝까지 자기들의 영영논리에 불들려 어린아이 같은 말싸움을 한 것이다.

그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미군이 해방군인가? 점령군인가? 하는 논쟁이다.

팩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이슈가 되었다. 양쪽 진영의 견고하게 굳어진 논리 앞에서 어린아이들이 들어도 이견 편싸움 하는 것에 불과한 것인데... 싶은 언어의 전쟁이 오가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때에 교단에서 역사학과 정치학을 두루 공부하고 중국선교사로 오랫동안 헌신했던 김동춘

다. 그것이 바로 분별적이고 통찰력이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12:2)고 하셨다. 요한1서 4장에는 잘못된 영에 대해서도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했다(요일4:1-3).

하지만 역사적 사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 그들에 대한 대처방식은 늘 '사랑'이어야 한다. 우리의 중심에 견지해야 할 것은 사랑의 태도이다. 우리 그리스도인 자체는 사랑 그 자체, 사랑 덩어리가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요한1서 4:7-11).

마지막 대목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 속에는 분노와 적대감이 늘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떤 역사적 논쟁이 있을 때마다 그 배후에 그런 정서가 있음을 눈치 채야 한다. 점령군, 해방군 논쟁도 마찬가지이다. 늘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크리스천에게는 분별력과 사랑이 중요하다.

우리는 과거사를 대할 때마다 포용성이 있어야 하고 또 논쟁하면서도 사랑이 있어야 한다. 역사적 혹은 정치적 사안을 대할 때마다 넓은 관점에서 통찰력과 안목을 가지면서 접근하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잣대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진실의 관점이다."

davidjeon@yahoo.com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 및 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낼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메일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nychpress@gmail.com  
신청일자: 20\_\_년\_\_월\_\_일 신청인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LA: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213)674-7982, (323)665-0009 E-mail: lachpress@gmail.com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어떤 때일까? 마냥 쉬거나 잠들어 있어도 괜찮을까?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저 적당히 세월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상황과 사건들을 통하여 경고하시기 때문이다. 일어나라, 자중하라, 따라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이런 때를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귀가 있고 다 듣는 것이 아니다. 영적 귀가 열려야 한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다. 엘리와 사무엘은 한 지붕아래에

서 자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소리는 사무엘만 들었다. 엘리는 부르시지 않고 사무엘만 부르셨다.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지금 가져야 한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고 하신다. 인생은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와 같다. 잠시 방심하는 한 순간으로 인해 영원토록 후회하며 땅을 칠지 모른다. 따라서 세상은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요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할 곳도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알아야 한다. 코로나19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이제까지 창궐한 것만으로도 지구촌이 거의 초토화가 되다시피 했는데 더 강해지고 교묘해지는 변이 바이러스가 여기저기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백신을 맞았다고 안심하며 마스크를 벗었는데 백신이 방패라도 된다는 듯 방심하는 사이 그 믿음(?)을 철저히 배신한 확산이 공포에 공포를 더하고 있다. 이러한 때 즉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자의 뜻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며 안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 길 즉 인생은 언제나 성령이 관여하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며 순종의 길로 가는 자의 인생을 책임져주신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의식

하지 않은 방탕한 결과로 영적 타락이 극에 달해 있다. 지금 우리가 숨을 쉬며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진정 노아시대의 죄가 관영함보다 모자랄까? 천부당만부당한 교만이고 어리석음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타락은 차라리 바늘독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재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르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더라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시니라”(단5:23-25). 이 세상의 주재이신 하나님이 그의 저울로 이 세상을 달아보시니 부족함

이 보였기에 이 세대를 끝내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역병이 코로나가 아닐까? 우주를 정복하고 그 우주를 여행한다는 뉴스가 토끼이 되고 있는 그 하늘 즉 이 세상의 하늘에 하나님이 '메네 메네 데켈 우바르시'라고 쓰신 것이 죄악으로 가려버린 이 시대에게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기에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이다. 날벼락이라는 말은 그 날발만으로도 섬뜩하다. 기적이 있는 자라면 그 날벼락이 내게는 닥치지 않기를 빌고 또 빌 것이다. 도로를 달리는 버스를 해체중인 건물이 덮치는 그 날벼락, 수천 명의 사람과 수백대의 차를 실을 정도로 커다란 배가 침몰하는 타이타닉호와 세월호의 날벼락, 여객기가 건물을 들어받는 911의 날벼락!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데 날벼락을 맞은 사람들은 꿈틀할 겨를도 없이 죽을 수도 있는 것이 지금, 바로 이 때일

수도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내려 놓으라 하신다. 세상 욕실에 함몰되어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라고 하신다. 은혜로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는 인생이 되라고 하신다. 먼저 너 자신을 던져 한 알의 밀알로 살라 하신다. 십자가는 반드시 져야 할 인생의 짐이라고 하신다.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었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을 향한 외침을 들을 때이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어야 할 때이다. 방탕하여 죄 짓고 세상 향락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은 세상이 개교전할 때다.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하고 화를 복으로 바꿔야 하는 때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때이다. hanmackim@hanmail.net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그레이엄 목사 집회광고 무단 철폐...

영국 랭커셔주 블랙폴시 의회와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참여하는 집회의 버스 광고(사진)를 무단으로 철폐한 사건에 대해 “중요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차별 행위를 인정한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고 크리스체리티투데이(CT)가 지난 16일 보도했다.



그레이엄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빌리그래함 전도협회(BGEA)는 “종교의 자유가 때 순간 지속해서 억압받는 이 시대에 해당 관청은 영국 전역과 그 너머의 기독교인들에게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인간의 성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고수하는 기독교인은 극단주의자가 아니며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것이 판사가 강조하고 있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그레이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선포되어야 한다”면서 “이 사건으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굳건히 하는 데 격려가 될 수 있길 기도한다”고 전했다.

블랙폴시는 지난 9일 홈페이지에 린 윌리엄스 시의회 의장 명의로 “광고를 철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것이라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철폐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개하면 사실상 인정한다”는 내용으로 사과문을 실었다.

블랙폴시와 블랙폴교통국(BTSL)은 2018년 지역 버스에 설치된 ‘랭커셔 희망 축제(Lancashire Festival of Hope)’ 광고를 축제 주최 측과의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철폐했다. 동성에 옹호론자들이 평소 동성애를 반대해온 그레이엄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는 사실을 알고 해당 축제 개최를 조직적으로 반대하며 시의회 등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현지 법원은 “종교적 견해로 인한 광고 삭제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1998년 제정된 인권법과 2010년 제정된 평등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또 블랙폴 시의회에 축제 주최 측에 손해배상금 2만5000파운드와 소송비용 8만4000파운드 등 모두 10만 9000파운드를 지급하고 사과문을 게재하라고 지시했다.

독일 대홍수, 교회들이 구호 나서

최근 독일을 비롯해 서유럽에서 발생한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가 160명을 넘어서면서 독일의 교회와 기독교 봉사단체들이 기도와 모금을 요청하고 나섰다.



독일개신교회협의회(EKD)는 지난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독일 서부의 여러 마을을 한꺼번에 쓸고 간 홍수의 결과가 너무 파괴적”이라며 “사망자와 실종자가 속출하고 있고 수많은 이재민이 모든 걸 잃고 망연자실했다”고 밝혔다. EKD는 “디아코니 라인란트베스트팔렌리페” “라인란트북부주교회” “베스트팔렌북부주교회”가 이재민을 돕기 위해 공동체조를 개설

하고 모금을 시작했다”며 “큰 상처를 입은 이웃을 돕는 데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자”고 권했다.

하인리히 베드포드 스트롬 EKD 회장도 “생명의 물이 죽음의 물로 변했다”며 “많은 이가 가뭄 속에 그리워했던 물이 재앙이 돼 버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폭우 피해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15일 독일 서부와 벨기에·네덜란드 접경 지역을 강타한 폭우와 홍수로 현재까지 독일에서만 141명이 숨지고, 벨기에에서는 27명이 사망했다. 실종자는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독일에서 100년 만의 폭우라고 보도했다. 특히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와 라인란트팔츠주의 피해가 컸다.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이 마을 수십 곳을 강타했고 집과 자동차가 한꺼번에 급류에 잠겨거나 휩쓸렸다.

목회자들의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독일 디아코니’ 회장 울리히 릴리에 목사는 “이재민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기독교인이 해야 한다”며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들을 위해 사랑을 전하자”고 말했다. 독일 디아코니(Diakonie Deutschland)는 EKD의 사회봉사기구로 독일 개신교가 지향하는 현대적 개념의 자선과 구제, 봉사 활동을 한다. 마르틴 케슬러 독일 디아코니 재난지원국 책임자도 “100명이 훨씬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며 “교회들이 복구를 위한 공동 모금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기드온 별명 ‘여름바알’ 새겨진 비문 발견

예루살렘포스트(JP)는 이스라엘 문화재 관리국(IAA)이 이스라엘 남부 키랏 가트(Kiryat Gat) 근처 키르 바트 에르 라이(Khirbat er-Ra'i)에서 구약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름바알의 이름이 새겨진 3100년 전 비문을 발견했다고 13일 보도했다. 비문은 도자기 그릇에 잉크로 쓰여 있다. 여름바알은 기드온의 별명이다. 이스라엘의 다섯 번째 사사로 40년간 활동했다.



JP에 따르면 도자기 물병에 새겨진 여름바알이라는 이름은 성경 본문 밖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됐다. 학자들은 주인이 항아리에 자신의 이름을 직접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당시에 문자를 도자기에 쓸 수 있는 사람이 많았다는 점에서 여름바알이 직접 썼을 것으로 보고 있다.

비문은 BC 12-11세기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조지워싱턴대 비문 전문가 크리스토퍼 몰스틴이 해독한 비문은 ‘요드’(yod·맨 위가 깨짐), ‘레시’(resh), ‘벳’(bet), ‘아인’(ayin), ‘라메드’(lamed)라는 다섯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 글자들은 당시 가나안족 언어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여름바알’이다.

발굴 현장을 공동 지휘하고 있는 히브리대 요세프 가빈켈(고고학) 교수는 “여름바알이라는 이름은 사사 기드온 벤 요아쉬의 대체 이름으로, 사사기의 전통에서 잘 알려져 있다”며 “기드온은 처음에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 우상 숭배와 싸우는 것으로 언급돼 있다”고 설명했다.

비문이 발견된 키르바트 에르라이는 2015년부터 발굴 작업이 진행됐다. 이곳은 이미 19세기 영국 고고학자들이 조사에 나서면서 알려졌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라기스가 한 때 자리했던 고고학 유적지와도 가깝다(텔라기스에서 3km 정도 떨어져 있다).

가빈켈 교수에 따르면 키르바트 에르라이는 주로 가나안 유적지였지만 강력한 블레셋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블레셋의 패권 아래 살기 위해 온 가나안 난민들이 주로 거주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비문은 성경 전통에서 기드온이 아니라 다른 여름바알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지만, 그 항아리가 기드온 사사의 것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통곡의벽 인근서 제2성전시대 건축물 발굴

이스라엘 성전산 통곡의 벽 터널 인근에서 로마식 공공 건축물 일부가 발굴됐다. 당시 예루살렘 유대인들의 생활상을 알려주는 단초가 될 전망이다.



이스라엘관광청은 14일 “발굴된 건축물은 성전산으로 이어진 길 위에 위치했던 BC 20-30년대 건물로, 예루살렘의 성전산 외부에서 발견된 제2 성전 시대의 가장 웅장한 공공 건축물 중 하나”라며 “당시 주교 고위 인사들이 성전부지 및 성전산 입장 전에 접견했던 시의회 건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발굴 현장은 다음 달 초부터 예루살렘 통곡의 벽 터널 내 새로운 경로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건축물은 호화로운 고대 로마의 전형적인 화려한 양식에 따라 장식됐으며, 응접실로 사용됐을 것으로 추측되는 정교한 분수가 있는 두 개의 화려하고 웅장한 방과 거대한 석판, 식사 장소로도 쓰였을 객실 내부의 리클라인 형태의 나무 안락의자 소파 흔적이 발견됐다. 또 제2 성전 시대 후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세 개의 분리된 방 중 하나에는 예배 의식을 위한 계산식 침례탕도 설치돼 있다.

이 건축물은 과거 성전의 변천사를 비롯해 하스모니아 시대와 로마 시대 사이의 예루살렘 유대인 생활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줄 것이라고 관광청은 전했다.

제2 성전시대란 솔로몬 왕이 세운 제1성전이 파괴된 이후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스톱바벨과 예수가 등이 중심이 되어 성전을 재건했는데 이때부터 제2 성전시대로 칭한다. 서기 64년 헤롯 대왕이 증건한 제3성전 시대 이전까지를 가리킨다.

통곡의 벽 유산 재단과 이스라엘 문화재관리국(IAA)은 통곡의 벽 터널과 성전산 주변 지역의 지속적인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제1차, 2차 성전시대의 예루살렘 도시 및 과거 성전의 흔적을 찾아왔다.

서울장신대 강후구(성서고고학) 교수는 “지금까지 연구된 것을 바탕으로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에 관한 조감도를 살펴보면 성전 서쪽에서 의의가 있다”며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이 지역에 놀라운 공공건물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확인돼 신약시대의 예루살렘 모습이 더 명확히 알려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 코로나 후 첫 탈북자 36명 복송 강력 비판”

NK.C 에바다선교회(대표 송부근 목사)는 14일 중국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처음 탈북자 50여명을



강제 복송했다는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와 관련, 강력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복송 대기 중인 탈북민 300여명에 대해서도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선교회는 19일 긴급 성명에서 “이번 복송자 중에는 한두 번 이상 복송 경험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 그들이 복송되면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선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해 “대한민국 법률상 한국 국민인 탈북자들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해 즉각 개입해 강제 복송 위기에 있는 333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은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즉각 현지 실태 조사와 생존권이 달려있는 탈북 난민 강제 송환의 근원적인 해결책을 위해 모든 조치를 시행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NK.C 에바다선교회는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정착을 돕기 위해 활동해 오던 가정행복연구원을 모태로 한 선교단체다.

이 단체 대표 송부근 목사는 이번에도 강제 복송 탈북민은 50여명이 아니라 36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송 목사는 “중국은 이들을 4월부터 복송하려 했는데 코로나19 환자 유입을 우려한 북한이 몇 차례 거부해 늦어진 것”이라며 “지금 중국 도문과 연길, 용정 등에서 복송 직전에 놓여 있는 탈북 난민 333명을 즉각 석방하고, 반복되는 인권 유린 행위를 근본적으로 중단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美 흑인대학 양극화...

미국 명문 흑인대학에는 기부금이 쇠도하는 가운데 적잖은 흑인대학이 입학생 감소와 자금난으로 폐교 위기에 놓여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8일 보도했다.



NYT는 ‘흑인대학, 마침내 조명 받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흑인대학(HBCU)에 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전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전 아내이자 자선가인 매킨지 스콧만 해도 지난해 20억 넘는 흑인대학에 5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 리드 헤이스팅스와 구글, 틱톡은 1억8000만 달러를 내놨다. 국회의원들도 45개 교육기관에 16억 달러 규모의 부채 탕감을 포함해 50억 달러 넘는 팬데믹(감염병 대유행) 구제자금을 지원했다.

흑인대학의 유명인사 채용도 잇따르고 있다. 워싱턴의 하워드대학은 마블코믹스 만화 ‘블랙팬서’의 작가이기도 한 저술가 타네히시 코츠, 탐사보도기자 니콜 한나 존스, 배우 필리사 라샤드를 교수로 영입했다.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비치의 베이토나 쿡맨 대학은 프로농구팀 시카고볼스의 가드 출신 레지 씨어스를 육상부 감독으로 채용했다.

NYT는 “이런 기부와 채용, 정부 지원은 다른 교육기관이 공공연하게 혹은 교묘하게 흑인 교육을 거부하던 시절 그들을 가르친 미국 내 흑인대학들의 중요성에 대한 갑작스러운 인정과 뒤늦은 깨달음을 알리는 신호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클라크 애틀랜타 대학의 조지 T 프렌치 주니어 총장은 “우리는 1865년부터 이곳에 있었다”며 “나에게 접촉해온 기부자들의 이름을 이제야 밝힐 수 있다”고 NYT에 말했다. 프렌치 주니어 총장에게 연락받은 기부자들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 같은 일들에 충격을 받았다”며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우리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한다.



#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 126. 황성택(1891-1968)

황성택은 1891년 6월 10일에 강원도 강릉에서 태어났다. 그는 형 황성국 부부와 함께 14세가 되던 1904년 6월 1일에 고향을 떠나 통역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는 1912년 8월에서 11월 사이에 하와이에서 상항을 거쳐 나성으로 이동했다.

#### 나성 한인장로교회 전도사

황성택은 1913년에 나성 한인장로교회에서 민찬호, 유성숙, 박동K, 김영훈과 함께 교회 지도자였고, 담임목사는 A. B. 프리차드 목사였으니 그는 전도사로 보인다. 1913년 11월 19일에 보고한 교회 통계에 따르면 그해 세례 받은 교인이 18명, 유아세례 받은 아기가 2명, 학습 받은 교인이 15명, 평균 예배 참석 교인이 26명, 평균 주일학교 출석수가 10명이었다. 교회 나오는 학생 중 대학생이 4명, 고등학생이 6명, 초등학생이 9명, 야학생이 5명이었다. 그해 교회 일반 경비가 801.09달러였는데 선교에도 열심히어서 한국에 보낸 내지선교비가 191.77달러였고 중가주 다뉴바 교회에 35달러를 보냈다. 그해 성탄절 경비가 40달러였다. 그해 11월 18일 잔고가 113.26달러였으니 흑자였다.

1916년에 중학교 4학년이었던 황성택이 1917년 7월 31일에 하와이에서 세계 제1차 대전 징집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그가 하와이로 이주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1918년 10월에 다시 나성으로 이주하였고, 1920년 10월 27일에 나성에서 이예스터와 결혼했다.

#### 힐스트리트장로교회 재무

황성택은 1921년 6월에 간도 참상에 후원했고, 이듬해 1월에는 쿠바 동포 구제에 참여했으며, 1924년 6월에는 유학생 유 덕에게 학자금을 보조하는 등 동포 사랑을 이어갔다.

그런데 1924년에 나성 한인장로교회가 제직원을 선임하는 신임과와 제직원을 불신임하는 불신임과로 분립되었다. 소위 신임과에는 이살을 목사와

정지영 등이 있었고 그들은 '알리부 콜 2번지'의 건물로 이동하여 예배를 드렸다. 황성택은 불신임과에 속했다. 불신임과는 제직원이 없이 지내다가 1924년 8월 17일 주일에 나성노회 대표 힐 목사를 모시고 '초목으로 지은 집은 불에 타되, 금, 보석으로 지은 집은 불에 타지 않는다'라는 다스 긴 설교제목의 설교를 들은 후 제직을 선정했다. 이때 황성택이 재무를 맡았다. 그 외의 제직원에 서기 한치관, 간사 김종육이 있었다.



황성택 목사

#### 나성 한인감리교회

1926년 8월 19일에 상항 부쉬스트리트 감리교회에서 미국 남감리교 연합회가 있었다. 이 회의에 힐 스트리트 장로교회가 교단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청원 위원장에 한승곤 목사였고, 위원에 김성권과 이영수였는데 황성택은 재무 및 서기였다. 이날 동양인 전도회를 창설하면서 힐 스트리트 장로교회의 가입을 허락하고 남가주까지 한인선교를 확장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는 북가주와 하와이는 감리교가, 남가주는 장로교가 동양인 선교를 담당하기로 체결한 양 교단의 체결한 협정을 반하는 결의로 보인다. 다음 달 12일 주일 오후 3시에 나성 한인감리교

### 나성한인장로교회 전도사, 나성한인감리교회 재무 유사 등 헌신 1949년 귀국 한국복음선교회 조직 6.25전쟁고아 돕고 교회개혁

회가 조직되었다. 이때 황성택은 김성권, 박재형, 이영수와 더불어 유사로 선임되었고, 그 외 목사에 한승곤, 주일학교 교장에 박경신, 평신도 대표에 임정수가 선임되었다. 신한민보는 이로써 나성에는 세 한인교회가 있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듬해인 1927년 5월 본 교회는 한인 30여 호가 모여 사는 나성 서남쪽 중앙인 웨스트 37가 1548번지의 주택을 구매하여 예배당으로 개조했다. 주일이면 예배당으로 쓰고 주중에는 국어학교로 쓰고 밤에는 친목 모임을 운영했다. 본 예배당 관리인으로 황성택이 최능익과 함께 선정되었다. 그리고 권찰로 박경심과 이성례 부인을 선임하여 심방토록 했다.

그해 11월경에 황성택은 부인과 함께 부친의 건강이 위독하다는 부음을 받고 귀국하던 길에 일본에서 부친 부고를 들었으니 안타까움은 형언할 수 없다. 1년간 한국에서 머무른 후 1928년 11월에 한국에서 태어난 아들과 함께 도미했다.

그런데 1930년 10월 12일에 나성 한

인예수교회의 버들봉 한인 예배당에서 감리사 데이비스 목사가 참석한 가운데 나성 한인예수교회가 미국 남감리교회로 변경되었고, 이에 나성 한인예수교회의 담임이었던 황사용 목사를 담임목사로 파송하고, 계속회가 열릴 때까지 나성한인 예수교회 임원을 유사로 두기로 하였다. 그들은 황성택 외에도 강영승, 김성권, 광림대, 임정수, 박재형, 박경신이 있었다.

'로트슨 한인연합감리교회 80년사'는 나성 한인예수교회가 1924년 10월 14일에 나성 한인장로교회에서 독립한 자유교회이고 본 자유교회의 예배당이 버들봉 스트리트에 있었다고 적고 있다. 그러면 1926년에 미국 남감리교에 가입한 나성 한인감리교회에 대한 연구가 별도로 필요하다.

1931년 1월 4일에 계속회로 모여 감리사 데이비스 목사의 사회로 임원을 선정했다. 황성택은 유사로 선임되었다. 목사에 황사용, 지방전도사에 강영승, 임성택, 김 강, 평신도 대표에 최능익, 주일학교 교장에 김해반, 유사에 황성택 외에도 임정수, 광림대, 박재형, 윤으로서, 박경신이 있었다.

1938년 5월경에 주일학교 학생이 4, 50명에 달하였고, 청년들의 예배 참여가 늘어나므로 종래의 예배당 건축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배당 건축기성위원회에 황성택 외에도 임 풀, 김 x, 안필립, 이애마, 안수산, 이마리아, 윤으로서, 김필권, 황사용, 최능익으로 정하고 진행방향을 연구 토의하기로 했다. 총예산은 15,000달러로 하고 전무책임

임함. 위에서 황성택은 신축 예배당 기가 매수 실행 위원 중 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1940년도 나성한인감리교회 임원이 1939년 10월 26일 자의 신한민보에 발표되었다. 목사 황사용, 부목사 이경선, 전도사 이창희, 권사, 김해원과 최능익, 재무 유사에 황성택의 부인인 황자넷과 이경선 목사, 소유물보관 유사에 임 풀과 데비스 그리고 김광우, 속삭에 임성택, 김관우, 황성택, 이마리아, 서기에 최능익, 영문서기에 황성택, 예배당 건축위원회에 이창희, 김관우, 황성택, 이마리아, 최능익, 주일학교 교장에 이베티, 찬양대위원에 임메블과 이경선과 최능익, 청년부 위원에 김 인과 김숙자 이하나, 윤영애, 이매리, 최봉윤이었다.

1942년 1월 황성택은 재미한국인 구제회를 조직하고 소록도 나환자를 후원했다.



황성택 목사 부부 모비

#### 황성택 목사

기존의 사역을 정리하여 1949년 11월에 황성택은 아내 송자넷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그해 서울 정릉교회를 개척하였고, 흥국형제단을 창립한 유재기 목사의 감작스런 소천으로 황성택이 흥국형제단의 총재로 취임하여 농촌계몽 운동과 구제와 전도에 매진하다 6.25전쟁으로 인하여 그해 9월에 황성택 부부는 도미하였다. 나성에서 모금한 후 황성택 부부는 귀국하여 1951년 8월 15일에 부산에서 한국복음선교회를 조직하고, 6.25전쟁고아를 위한 이사벨보육원을 설립하고, 이듬해 소년농장을 조성하고, 양정복음교회(현 양정중앙교회)를 개척했다. 1963년에 보육원을 경기도 시흥으로 이전하여 수품원을 운영하고, 이듬해 복음학원을 설립하고 1965년에 부산 보육원 부지위에 황성택 부부는 신동혁 목사 부부와 함께 이사벨 중고등학교를 건립하였다. 1950년 초 나성에 거주한 이사벨 데이비스가 첫 아이를 낳았으나 반신마비가 되었는데 치료를 위해 받은 보험금을 한국복음선교회에 기부하였으므로 그녀의 봉사정신을 기려 그녀의 이름을 따 보육원과 학교 이름으로 사용했다.

황성택은 1968년 1월 18일에 향년 77세로 소천했다. 아내 황자넷은 1982년도에 향년 79세로 소천하였다. 묘비에는 각각 목사와 선교사로 직함을 표기했다.

damien.sohn@gmail.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후 8: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나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남가주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김현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후 1: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금요성경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jer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b>남가주사랑의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 예배: 오후 7:30 영어(영소:KOC, 평일드림센터) 수-금요일 예배: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동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b>디아스포라선교회</b>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박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 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수: 오후 1:30 수요일 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b>복음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15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령강화예배: 오전 9:15, 11:30 일요일: 오후 3:00 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엘메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후 7:00 새벽 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b>엘피스사역원</b>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선교회와 협력목사 성서학(월-금) 오아시스-주요목사(토)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회 3. 목회상담 4. 가정사역 5. 영성사역 6. 네트워크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새벽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온선 Tel: (714)446-8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세운교회</b>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평일)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명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금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금) 오전 5:30(토) Tel: (714)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b>좋은마을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714)646-9259 www.soci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sstoneivm.com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 M 예배: 오전 9:45(101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 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g.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b>하늘소망교회</b>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30(토) 수요일예배: '영성경이 임하시네'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리더십 코멘터리 (139)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 리더의 문제를 치유하는 영적백신

문제보다는 문제를 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혼란과 공황 상태에 빠졌던 사회가 COVID-19 백신 접종을 통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인생이란 항상 평온할 날이 없고 세상에 완벽한 문제해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해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변이 코로나바이러스를 전 세계적 우려 변이로 분류했다.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리더는 계속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 골몰해야 한다.

스위스가 낳은 정신분석학자 칼 메닝거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실에 대한 태도는 그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우리가 직면한 어렵고 절망적인

방어하려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감정적인 반응을 하기 전에 내면 깊숙이 그 문제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리더십이란 먼저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지혜로운 과정이다.

②문제해결보다 관계가 우선이다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문제는 해결 되었지만 관계가 파괴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 있다. 리더십이란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과정이다.

③문제발생의 근본원인을 찾아라  
문제는 겉으로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다. 문제발생 배후에 무엇이 작동하고

할 수 없고, 상대방에 대해 온전한 태도를 가질 수 없다. 리더십이란 상대방과의 벽을 허무는데 초점을 맞추는 과정이다.

문제를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으로 전환시키는 리더가 되라

교회는 불안정한 세상 속에 존재하며 불안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 내에 갈등이 있다는 것은 극히 정상적이며 더 나아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교회도 사회 영역 속에 포함된 기관이며 하나의 조직체이지만 갈등에 있어서 특별한 환경을 갖는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회적으로 성장배경이 다르고 개인의 욕구가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갈등을 두려워하고 회피하고자 하는 이유는 갈등이 가지는 역기능적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회 내에서의 갈등은 교인과 교인 간의 적대감, 반목, 시기, 질투, 심지어 폭력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게 된다. 이는 공동체의 파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갈등이 극대화되고 만성화되면 결국 교회가 완전히 분열되는 경우도 있다. 갈등이 심해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중심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고, 상식과 이성에서 벗어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교회를 살려야 한

## 갈등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공동체 성장 밑거름으로 원인에 대한 총체적 진단 필요... 감정보다 대화, 관계가 중요

상황도 그 상황에 맞서는 우리의 태도에 비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사고방식은 어떤 조취를 취하기 전에 리더를 패배시킬 수 있다. 즉 어떤 사실에 직면해서 실제로 그 일을 처리하기도 전에 심리적으로 압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리더의 자신 있는 태도는 그 사건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정복할 수 있게 한다.

문제해결을 위한 리더십의 영적백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피할 수 없다. 리더라면 누구나 한 번 이상의 심각한 갈등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래서 리더십이란 때 순간이 갈등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든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논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면 조직 전체를 무너뜨리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인간의 말은 상상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지혜롭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리더의 태도가 중요하다. 리더는 항상 문제 속에서 지혜를 찾는 사람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리더십의 원리는 무엇일까?

①감정적으로 대하지 마라  
반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라. 자신을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때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 리더십이란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보다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지는 지혜로운 과정이다.

④감정을 표출하기 전에 먼저 대화하라  
상대방에게 찾아가 무엇이 문제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묻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서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리더십이란 겸손한 자세로 대화를 시도하는 과정이다.

⑤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라  
인간관계에서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으면 인간의 마음은 수만 가지의 상상과 반응을 하게 마련이다. 방어기제가 작동하고, 무엇을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가능하다면 얼굴을 맞대고 차분히 대화하라. 리더십이란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면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다.

⑥사랑을 확인하라  
대화를 하기 전, 대화 도중, 대화 후에 상대방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더십이란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⑦갈등의 벽을 허물어라  
갈등의 상황에서는 서로에게 큰 벽이 존재한다. 벽이 존재할 때는 제대로 반

다는 생각보다 교회가 분열되더라도 상대방을 파괴시키려고 온갖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갈등을 긍정적으로 보면 갈등이란 조직의 생존에 불가결한 적응과 변화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이 없으면 조직은 정체되고 심한 경우에는 사멸의 운명을 맞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갈등은 의사결정의 질을 개선하고 창의성과 혁신을 촉구하며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조직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갈등이 가지는 유익이 있다 할지라도 갈등은 반감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갈등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갈등을 미리 최소화하고 야기된 갈등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적당한 갈등은 리더와 구성원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순기능적 역할을 한다.

현명한 리더는 갈등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공동체 성장의 밑거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고 더 나아가 갈등의 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그에 따른 해결책을 지혜롭게 찾아야 할 것이다.

sondongwon@gmail.com

[편집자: 지난 6년 가까이 격주로 '리더십 코멘터리'를 연재해주시는 손동원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안부모 가정사역



**유효정 목사**  
(LA비전교회 협력)

## 이혼가정 자녀회복(5) 하나님이 누구시지?

질문: 나의 아버지는 내가 태어났을 때 아빠되는 것이 싫어서 떠났다고 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면 물건을 던지고 친구를 때려려 하다 보니 선생님들은 내가 하지 않았을 때도 나를 꾸지람하시요. 하지만 엄마는 많이 바쁘셔도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주세요. 어느 날 엄마가 교회를 가자고 하셔서 따라 갔는데 교회선생님들은 무조건 나를 나무라지 않아서 너무 신기했어요. 요새는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지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싶어요.

### 함께 사는 부모가 사랑의 말과 행동으로 안심시켜야

답변: 이혼 혹은 별거이후라도 양육을 맡은 부모나 그렇지 않은 부모가 협력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와 같이 비양육 부모가 아예 잠적한 경우에는 자녀들이 버림받은 느낌을 갖게 되면서 그들 삶의 기반인 양육 부모마저 떠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정서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함께 사는 부모가 적절한 사랑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뿐 아니라 외딴골의 어머니와 같이 주위사람들과는 달리 자녀를 격려하고 믿어주는 긍정적 양육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밖에 자녀들이 교회학교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한다면 신앙심과 자긍심을 얻게 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곁에서 자녀들의 자라남을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봐줄 수 있는 교회학교 사역자나 주일학교 교사들이 시도했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세미나” 같은 것을 열 수 있다면 효과적이겠지만 잘 모이지 않는 것이 현실인 만큼 교사나 사역자들이 위로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대일로 대화의 문을 열어야 할 것입니다. 점차로 부모와 헤어져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도울 뿐 아니라 고학년들에게 학업, 친구관계, 진로, 취업과 사회생활 준비 등의 과제를 상담해준다면 이상적인 것입니다. 그밖에 아빠 없이 어머니와 살고 있는 남자아이들을 위해서 덕망 있는 장로나 집사님 택에서 하루 이틀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다면 신앙 깊은 남자어른을 롤 모델로 접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의 일들로 무기력감에 빠져 있을 수 있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위로와 희망을 갖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걸로 믿어집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정도에게 나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깨닫고 기도하여 이스라엘 인민족을 살린 에스더의 이야기(2장-7장)’입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포로의 후손으로 부모님도 없어 사촌오빠, 모르드개의 도움으로 길러졌는데 페르시아라는 큰 나라의 왕비가 될 수 있었어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개를 미워해서 모든 유대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세웠고 왕은 이를 승인해준 상태였어요. 모르드개는 에스더에게, ‘왕비가 된 것은 왕으로부터 유대민족을 살리게 하는 일을 위함이 아니겠냐고 하자 에스더왕비는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했어요. 마침내 하만이 죽게 되고 유대민족은 살아날 수 있었지요.”

“하나님은 각각의 어린이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우고 싶어 하시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연락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연락하듯이 그렇게 말하면 되지요. 하나님과 얘기하는 것이 기도이고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지요.”  
hyojungyo2@yahoo.com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b>다민족 교회</b>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 예배: 오전 11:30 주일 그룹 교제 및 기도회: 오후 1:00 주일 학교: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성경공부/기도회: 수요일 밤 8:00 다민족 찬양: 캐쉬 루프길 오후 4:00-7:00</p> <p>Tel. (773)902-1112 esfc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p>	<p><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아예: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47</p>	<p><b>벤엘교회</b>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p> <p>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Weymouth, MA 01748</p>
<p><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p>	<p><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p>	<p><b>앵커리지열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Levittown, PA 19044</p>	<p><b>킬런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미전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p> <p>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b>워싱턴메시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토요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6675, www.tacomacr.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p><b>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 L.A.: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p>





목회서신

누군가 통하고 있다면

제임스 짐 스토크테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월남전쟁 당시 미 해군 준장으로 지휘하다가 그...

습니다. 기자들이 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How Survival?" 그 어려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

무릎을 꿇게 하고 밤도 주지 않고 잠도 자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금만 눈을 감으면 감시자가...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게 죽을 수도 없는 참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점심시간이 되자 다른 미군포로들이 자기 옆을 줄지어...

슬면서도 빗자루를 가지고 툭툭 두두둑 서로 만나면 잠시 스치는 순간에도 눈으로 서로...

복하는 사인을 보내는 아름다운 이웃이 되십시오. 엄지손가락을 곧게 세우고, "당신은 훌륭합니다. 당신은 이길 수 있습니다..."

dik0184@yahoo.com

인/터/뷰

세계선교교회 8대 담임 김창섭 목사

“성실과 신실함으로 행복한 교회 만들겠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멈춰버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불안함 속에 있던 1년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백신접종으로 인해 일상이 하나둘씩 돌아왔고 교회역시 예배참석인원제한이 사라지게 됐다.

축제의 장을 연상케 하는 예배가 드러났다. 그도 그럴 것이 팬데믹 기간 뜻하지 않은 리더십의 교체로 인해 교회가 위축되는 어려움 속에 놓이게 됐기에 새 담임목사의 부임은 그야말로 교회가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었다.



김창섭 목사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선교교회 8대 담임목사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불러주시는 만큼 그 인도하심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려웠던 만큼 교회가 더 행복하고 시련에 하는 마음으로 목회하려고 합니다”

과 교감이 이뤄지는데 시간이 필요했던 거 같습니다. 지금은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 많이 가까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선교교회 역사가 48년이 됐는데 8대 담임이니 평균 6년 정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자의 말에 김 목사는 웃으며 말했다.

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저로 인해 저희교회가 행복한 곳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또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역하려고 합니다.” 세계선교교회가 최근 담임목회자의 이탈현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는데 김창섭 목사가 부임하기 전 사역했던 사랑의빛선교교회 역시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던 공통점이 있었던

던 것이 세계선교교회 사역에 어떤 모습이던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랑의빛선교교회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또한 이 교회는 48년이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48년의 역사성은 그만큼 폭풍과 비바람을 견뎌내며 자라났다는 것이며 그만큼 견고하다는 의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나서 새 직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곳마다 합격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심지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주시며 신학교 입학할 하라는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하고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지난 2013년 9월 미국으로 이주한 김창섭 목사는 그해 12월부터 사랑의빛선교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시작했으며 7년 3개월간 사역했다. 그리고 세계선교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됐다.

세계선교교회로 사역이 변경이 될 때 가족의 반응에 대해 김 목사는 “결정해 따라준 아내와 아이들에게 감사하다”며 “특별히 두 아이들에게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있다”고 말했다.

(11면으로 계속)

본지에 실린 청빙광고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생각 48년 교회 역사성은 폭풍과 비바람 견뎌낸 견고함 의미

“미주크리스천신문에 실린 담임목사 청빙광고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감사하게도 저의 지원이 받아들여졌고 담임목사로 부임을 하게 됐고요.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교인들이 받은 상처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인들

다. 쉽지 않은 사역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세상에는 쉽게 사역할 수 있는 교회, 그렇지 않은 교회는 없다고 생각해요. 쉬운 사역, 어려운 사역이란 목회자의 성실도와 신실함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목사는 지옥을 천국으로 만드는 자라

것이 담임목사로 사역하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김 목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공교롭게도 제가 담임으로 부임하기 전 사역했던 교회도 동일한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했었습니다. 사랑의빛선교교회가 회복되는 과정을 경험했

미이기도 합니다. 잠시 비틀거렸지만 오목이처럼 다시 일어설 뿐만 아니라 더욱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으로 생각하며 기대합니다.” 김 목사는 어떻게 목회자가 됐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이었다고 말했다.

어 좋은 직장에 취업할 기회가 생겨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신체검사에서 탈락해서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취업의 길이 막히는 거 같아 고민도 되고 이러한 고민이 불면증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Advertisement for 'World Mission Church'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featuring a grid of 24 church branches with their respective pastor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main header is '동부(NY, NJ)교회'.



# 동부교계 기사판

## 제 6회 PGM 선교사집중훈련

2021년 제 6회 PGM(국제대표 호성기 목사) 선교사집중훈련이 열린다. 일정은 △1차 수료대상: 8월 23일(월)-9월 3일(금), 오후 7시-10시(미 동부시간) △2차 파송대상: 8월 23일(월)-9월 10일(금), 오후 7시-10시(미 동부시간), 교육은 줌 유튜브로 훈련대상은 스포츠, 교육, 의료, 캠퍼스, 영상, 어린이, VBS, 청소년, 공휴, 건축 사역 등의 전문인 선교사. 등록비는 개인 50달러, 부부 80달러. 등록마감은 8월 6일(금).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pgmusa.org](http://www.pgmusa.org)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admin@pgmusa.org

## 대학생 리더십 캠프

낮은올타리 미주본부(대표간사 조희창 목사)가 주최하는 2021 College Student Leadership Camp가 8월 2일(월) 오후 2시부터 4일(수) 오후 2시까지 2박3일간 필라델피아 근교 52 Warden Rd, Doylestown PA 18901에서 진행된다(영어). 등록비는 30달러(숙박 및 식사, 모든 비용 포함). 슬리핑백과 세면도구 지급해야 하며 선착순 15명. 등록링크는 [Zelle-woolarius@gmail.com](mailto:Zelle-woolarius@gmail.com)

▲문의: (646)300-4790

## 부모교육 세미나

뉴저지 필그림선교교회(담임 양준길 목사) 부설 디딤돌 리더십아카데미 교육원이 주관하는 부모교육 세미나가 8월 13일(금)과 14일(토), 20일(금)과 21일(토) 오전 9시30분부터 11시까지 열린다. 참가대상은 영유아, 초등학교 자녀를 둔 학부모와 양육자이며 대면으로 진행된다. 강사는 김희선 박사. 미술치료 부모교육 'DIG IN: 행복씨앗 찾기'에서는 건강한 부모 되기 위해 먼저 자신만의 숨은 내면아이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미술치료 기법을 통해 갖게 되고 '미디어 코칭' 세미나에서는 포스트 팬데믹으로 미디어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미디어중독 예방을 위해 가정안의 균형 있는 미디어 거러두기와 음란물 문화 폭력성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나눈다. 등록 마감은 7월 30일까지. 등록신청 링크 <https://forms.gle/tW5XTCKBMNzqtS276>

▲문의: (201)618-2262, jeonyounho@gmail.com 전문호 총무

## 사무직원 모집

비영리단체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조직적 열정적이며 결단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사무원을 모집한다. 자격, 기술 및 지식 요구사항은 세부사항 체계화, 빠른 속도의 환경에서 멀티태스킹 기능, 언어 및 작문 모두 뛰어난 커뮤니케이션 기술, Microsoft Office (Word, Outlook, Excel) 및 Microsoft Access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숙련도, 한영 2개 국어로 구사 선호, 이메일 마케팅 및 설계 툴(예: Wix, Canva)에 대한 실무 지식 또는 유사한 툴로 작업한 경험, Facebook 및 Instagram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실무지식 등이다. 주당 30-40시간 근무, 시간당 17-20달러 지급. 이력서를 [info@familytouchusa.org](mailto:info@familytouchusa.org)로 보내면 된다.

▲문의: (201)242-4422

# 족구대회, 보물찾기, 퀴즈대회...

## 뉴욕한인목사회 야외친목회, 오찬은 바비큐로

제 49회기 뉴욕한인목사회 체육대회 및 바비큐 파티가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알리폰드 파크에서 열렸다.

회장 김진화 목사는 "아침 8시부터 와서 준비했는데, 그 시간에 비가 오니 파크에 있던 초등학교 등 단체들이 모두 가버려 목사회가 편하게 모임을 하게 됐다"며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코비드 안정세로 오랜만에

모인 목사들은 예배를 드리고 바비큐로 오찬을 나눈 후 족구대회, 보물찾기, 퀴즈대회 등을 하며 선물을 나누고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예배는 총무 유태웅 목사 인도로 경배와 찬양 김정길 목사, 기도 박태규 목사, 성경봉독 심화자 목사, 특송 안경순 목사, 설교 방지각 목사, 합심기도 노기명 목사, 광고 정인수 목사,

축도 김용걸 신부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왜 사랑이 제일 일인가?"(고전13:13)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며 이것이 기도제목의 돼야 한다"며 "첫째, 하나님의 사랑이 커도 믿어야 한다. 둘째, 소망이 있어야 전능하신 하나님도 역사하신다. 셋째, 아가페 사랑은 공의와 거룩을 동반한 사랑이며 천국까지 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모두들 사랑의 목회하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합심기도는 △조국과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부국강병 되도록 △뉴욕교계의 목회 선교 사역에 불같은 부흥이 다시 일어나도록 제목으로 기도했다.

이날 뉴욕원로목사회 신임회장 김종권 사관부부가 참석했으며 텍사스로 이사한 증경회장 김영환 목사가 참석해 회원들의 환영을 받기도 했다.

식사기도는 황경일 목사가 했으며 오찬은 퀸즈성령강림교회(마바울 목사)가 준비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한인목사회 야외친목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건국대통령 유남 이승만 박사 서거 56주기 추모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회장 김종권 사관, 부회장 소의섭 목사

### 뉴욕한인원로목사회 제17차 정기총회 임원선출

대뉴욕지구한인원로목사회 제 17차 정기총회가 13일 오전 10시30분 뉴욕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당에서 열렸다. 이날 신임회장에 김종권 사관, 부회장에 소의섭 목사를, 총무에 이병홍 목사가 선출됐다.

김종권 사관은 2008년 부회장으로 재임했으나 2009년 선거에서 회장직에 오르지 못했다. 김 사관은 "12년 전에는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장거리 운전도 힘들어 양보했으나 김용걸 신부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며 맡게 됐다. 다시 한 번 기회를 잡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1부 예배에 앞서 21회방재단 변종덕 이사장의 축사와 감사패 전달이 있었다. 변 이사장은 "1990년 한인회장으로 일할 때 당시 협회회장 방지각 목사님께서 한인회를 찾아오셔서 한인화의 성수주일과 주일날 행사 안하기를 부탁하셨다"며 그 두 가지 약속을 2년 회기 동안 잘 지켰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회장 김용걸 신부(성공회)는 21회방재단이 팬데믹으로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는데 5천 달러를 후원했다며 지속적인 후원을 부탁했다.

예배는 소의섭 목사 사회로 기도 이병홍 목사, 설교 립인환 목사, 특송 이정강 사모, 축도 정인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립인환 목사는 "신앙과 지식"(고전2:1-1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신앙은 허망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신앙에 도달하기 위해 이성을 근거로 하기에 인간적 권위를 갖게 되며 도덕적 행위의 원동력인 실천이성은 깊은 자극을 준다"고 말했다.

립 목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며 신앙은 인간생활에 구체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생활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확실히 믿으며 승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2부 총회는 김용걸 회장 사회로 개회기도 후 회원호명, 개회선언, 회순채택, 전회록 낭독, 경과 및 사업보고, 감사보고, 결산보고, 임원선거 등으로 이어졌다.

김용걸 회장은 임기동안 7, 8천 달러의 후원금을 모아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전달하고, 임원회 모임도 자비로 총당하는 등 헌신했음이 회계보고에서 밝혀졌다.

임원선거는 전 현직 회장 5명이 즉석에서 공천위원회를 구성해 회장에 김종권 사관, 부회장 소의섭 목사, 총무 이병홍 목사를 추천하고 통과시켰다. 서기와 회계, 감사는 전례대로 회장단에 일임했다.

신안건 토의에서는 본회 영어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American Retired Clergy in the Greater New York'에서 American을 삭제하는 것을 임원회에서 논의해 다음 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이날 회칙 제3장 회의의 선거제15조 '임원은 3년 이상'을 '1년'으로 수정했다.

김용걸 신부는 순서지 인사말을 통해 "팬데믹으로 1년3개월을 더 회장직을 수행했다"며 그동안 소진한 목사와 사모들을 언급하고 회원들의 사랑을 회고하고 감사했다.

소진한 회원은 장정순 목사, 김용욱 목사 감람실 사모, 박장하 목사 박능숙 사모, 박약실 목사, 김해중 감독 박화세 사모, 박희구 목사, 최승호 목사. (유원정 기자)

## "나라사랑, 하나님사랑 되살리자"

###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서거 56주기 추모예배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주최 "건국대통령 유남 이승만 박사 서거 56주기 추모예배"가 7월 19일 오전 뉴욕에은교회(담임 김명옥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김명옥 목사는 "56주기 유남 이승만 박사 서거일을 맞아 잊혀져가는 이승만의 정신인 건국사랑, 나라사랑, 하나님 사랑을 되살려 자유대한민국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모예배는 사무총장 박진하 목사 인도로 회장 김명옥 목사의 인사가 있은 후 대표기도 김용욱 목사, 황일봉 장로의 성경봉독 후 노기송 목사가 "진정한 섬김과 희생"(마20:28)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이종명 목사와 이준구 전 경기대교수의 추모사, 현금기도 조의호 목사, 특송 테너 김영환 전도사, 광고 남태현 장로, 축도 안창의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이종명 목사는 추모사에서 "위대한 건국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은 풍요와 번영의 기쁨을 마련했다.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염원인 자유와 번영이 강물처럼 흘러가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고귀한 애국애족 정신을 이어가는 길에 온 국민이 전심전력 경주하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수석부회장 남태현 장로는 "본 뉴욕지회는 대한민국을 기독교정신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자주국가로 세우신 이승만 박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며 궁극적으로 건국정신을 목표로 삼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구행사를 비롯해서 이승만 포럼 및 시국강연회 등을 통해서 그분을 재조명하며 특히 차세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르게 교육시킬 목적으로 이승만학당, 이승만장학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고 소개하고 "8. 9월 중 보수단체 구국대회 및 뉴욕지회 후원 골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뉴욕지회는 프라미스교회 건물 7층에 사무실 겸 전시실이 개설돼 있어 이승만 박사의 생애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사전 연락하면 관람할 수 있다.

▲연락처: (212)433-0724, (718)539-5700  
(기사제공: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뉴욕지회)



월드허그파운데이션 임원들이 마스크 배부에 앞서 기념촬영 했다.

## 월드허그파운데이션 마스크 30만장 배부

### 100여 교회 및 단체, 개인에 무료로

월드허그파운데이션(이사장 길명순)이 7월 20일 텐탈 마스크 30만장을 배부했다.

월드허그파운데이션은 구호단체 UA3에서 도네이션을 받았으며 오전 10시부터 후러싱에이스 인쇄소(149-51 Roosevelt Ave) 앞에서 배부를 시작했다.

이날 미리 예약한 100여 교회 및 단체, 개인이 드라이브

드루로 배부 받았다. 요즘 변이 바이러스 출몰로 마스크가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길명순 이사장은 밝혔다.

월드허그파운데이션은 팬데믹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매주 푸드박스를 배포해왔다. 또 뉴욕시의 지원을 받아 얼굴보호필드, 손세정제도 배포했으며,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장난감, 팝콘 등을 나눠주기도 했다.

▲연락처: (646)254-2992 (유원정 기자)



뉴욕한인원로목사회 제17차 정기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증에 관계없이, 40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mailto: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방역부터…” 모든 예배 온라인 전환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첫 주일 교회 표정

서울 강남구 강남중앙침례교회(최병락 목사)에 다니는 이동길(60) 장로는 지난 2월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된 뒤 출근 주일 예배를 현장에서 드렸다. 그러나 18일에는 또다시 집에서 아내, 자녀와 함께 인터넷으로 주일을 지냈다. 그는 “안타까운 마음이 컸다. 하지만 어느 때보다 교회가 철저히 방역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수도권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렸다. 일주일 전엔 수용 인원 20%가 예배당에서 예배했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하면서 수도권은 최고 수위인 4단계를 적용했다. 15일에 4단계에 맞춰 종교 시설의 방역지침도 공개했다. 비대면예배를 위해 예배당엔 방송 등 필수인력 인력의 최대 20명 이내만 출입하도록 했다. 성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했다.

교회와 교단들은 4단계에 맞춰 방역수칙을 지켰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준희 총회장은 최

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교회 지침을 총회 홈페이지에 올리며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과감한 결단과 철저한 실행만이 사태를 진정시키는 일”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이영훈 목사)는 이날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송출했다. 1만2000여석 규모의 교회 예배당에는 설교자 이영훈 목사 등 예배 위원 5명을 포함해 방송 송출 인력, 찬양대 등 20명만이 참석했다. 대신 예배당 앞에 놓인 대형화면 두 개에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이 비쳤다.

영락교회(김운성 목사)는 주일 1-5부 예배, 주일 찬양예배, 수요 1·2부 기도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드렸다. 코로나19 관련 신고 전용 연락처를 마련해 긴급 상황에도 대비했다. 소망교회(김경진 목사) 역시 25일까지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했고, 교회학교의 여름 수

련회와 교육 프로그램도 온라인 진행을 결정했다. 강남중앙침례교회도 홈페이지에 ‘12일부터 현장예배는 4단계 동안 참여 불가’라는 메시지를 올리고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바꿨다.

한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은 17일 ‘대면예배 금지 무효 판결에 대한 논평’을 냈다. 전남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심포씨 등 서울 소재 7개 교회와 목사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교회 대면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한교총은 논평에서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종교의 자유’는 감염병 상황에서이라도 최소한의 제한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본 점과 국민 기본 생활의 행동을 제한할 때는 형평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이 공간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이내로 제한한 판결의 결과는 기존 내용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다른 사실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새로운 지침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 대면 비대면…교단 ‘9월 총회’ 깊은 고민

### 거리두기 격상으로 총회 준비에 비상 걸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수도권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자 오는 9월 열리는 정기총회를 준비하던 교단들의 고민도 커졌다. 교단의 정기총회에는 최대 1500명 넘는 총회 대의원과 직원, 취재진이 참여한다. 회무도 오전 8시 경건회를 시작으로 밤 9시까지 진행되는 게 보통이다. 총회 기간 중 대의원은 매끼 함께 식사하고 2명 이상이 숙소를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교단들은 대면총회 유지와 비대면 전환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예장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 총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끝나는 시점까지 총회 준비를 잠시 멈추기로 했다. 애초 예장합동은 9월 13일부터 사흘 동안 울산 우정교회(예동열 목사)에서 총회를 열 계획이었다. 예장합동 총회의 한 관계자는 “백신을 맞은 사람이 집합금지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고 해 이에 맞춰 총회를

준비했다”며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하면서 앞으로의 상황을 누구도 예측 못 하게 돼 총회 준비를 잠시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신정호 목사) 총회는 대면총회를 염두에 두고 있다. 오는 9월 28일부터 31일 동안 경기도 한소망교회(류영모 목사)에서 총회를 여는 예장통합은 인근의 거룩한빛광성교회(곽승현 목사)로 총대들을 분산해 거리두기를 지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변창배 사무총장은 13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현재로서는 대면 총회를 연다는 기준의 결정에는 변화가 없다”며 “총회 주요 부서 부처장 인선도 해야 하는 등 여러 상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장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 총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임원회를 열고 회의 형태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총회는 지난해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활용해 비대면 총회를 개최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 회장 이철 목사)는 오는 10월 말 제34회 총회 임법의회를 연다. 교단 헌법인 교리와 장정을 개정하는 임법의회에는 임법위원만 500명 참석한다. 기감은 직원과 취재진을 포함하면 참석자가 6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감 본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 올 가을에는 상황이 호전되길 바라고 있다”며 “임법의회가 열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해와 같은 온라인 총회를 권했다. 이 교수는 “지급과 같은 추세가 그때까지 이어지진 않더라도 1단계로 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은 현실인 만큼 많은 인원이 밀폐된 공간에 모이는 총회는 지양하고 온라인 총회 같은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전국에서 많은 분이 한곳에 모였다 다시 전국으로 흩어지는 것 자체가 아직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 “예배당 규모에 맞는 유연한 지침 필요”

### 소강석 한교총 대표회장 정부에 교회 자율권 회복 요청

교계가 정부에 방역지침 4단계 시행으로 인한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전하며, 예배당 규모에 맞는 유연한 지침을 정해줄 것과 예배에 대한 교회의 자율권 회복을 요청했다. 정부가 근시안적인 방역 정책의 실패에 따른 잘못을 시인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소강석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대표회장은 1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한국교계 지도자들과의 긴급간담회에 참석했다.

소 대표회장은 이날 김 총리에게 교회의 방역상황과 비대면 예배 시행의 어려움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예배 공간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수천석 규모의 예배당이 보다 더 유연한 지침을 정해주면 좋겠다”면서 “비대면 상황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예배 인원 참여가 가능한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은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단계까지 이르게 된 원인은

로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편향적인 방역정책을 꼽았다.

한교연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성을 고려하더라도 교회마다 피 나는 노력을 한 덕분에 교회를 통한 확진자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교회가 또다시 예배를 통제해야 하는 현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변이 바이러스가 폭증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근시안적인 방역 정책으로 술집 등 유흥시설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어줌으로

써 방역에 있어 국민적 해이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노총은 8000명이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해도 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택시도 타면 안 되고, 모임도 하지 말라는 식은 누가 봐도 편파적이고 편향적 방역 정책의 실패”라면서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방역을 구실로 통제와 규제의 대상으로 삼아온 예배에 대한 교회의 자율권을 회복하는 동시에 보다 철저한 책임방역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수도권 4단계, 교회 19인 이하 대면예배

### 면적 상관없이 일괄적용…대형교회는 사실상 비대면

방역당국이 법원 결정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종교시설의 수용인원을 일부 수정했다. 영상예배가 어려운 교회는 수용인원 10%까지 대면예배가 가능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면 예배 금지 집행신청에 대한 행정법원의 일부 인용 결정을 고려해 방역수칙 개선방안을 종교계와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지방법원은 소규모, 고령자 등 물적·인적 자원의 한계로 사실상 비대면이 불가능한 종교시설을 고려해 행정 비대면 원칙을 유지하되, 보완적으로 대면 예배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만 참석, 기존 방역수칙 위반 전력이 있는 교회는 제외, 모임·행사·식사·숙박은 전면 금지 등을 결정했다.

## “다수 권리제한·차별조장 ‘평등법’ 철회해야”

### 기하성, “동성애 조장 독소조항 심각 우려” 촉구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서 지난 6월 진행된 ‘평등법’ 제정 반대 국민 청원이 91시간만에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은 신앙 양심에 어긋나며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할 소지가 크며 입법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기하성은 이날 낸 성명서에서 “평등법은 평등을 앞세우고 소수 보호의 명분을 주장하지만, 도리어 다수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조장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며 “이미 발효 중인 30여 가지의 개별적 차별금지법을 잘 시행하는 것이 차별을 막고 평등을 높이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평등법은 동성애 보호법이고, 동성애 반대자 처벌법과 같다”면서 “법률안 속 동성애를 조장하는 독소조항에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며, 극소수의 동성애자를 보호하려다 한국사회의 건강함 가정을 제약하는 문제가 크기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붙였다.

기하성은 평등법이 한국교회가 이단·사이비 종교 문제에 대처하는 일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해당 법안 속 ‘괴롭힘’ ‘혐오표현’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

석하고 의도적으로 악용해 목회자의 정당한 종교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기하성은 “평등법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려다가 다수를 차별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면서 “기하성 총회와 10개 지역총연합회, 5400여 교회, 160만 성도들은 평등법 제정을 반대하며, 법률안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 신학자 50명 공동저술 ‘지구정원사 가치사전’

### 출간기념 저자 릴레이 토크…27일 살림연구소에서

기독교한경교육센터 살림(센터장 유미호)은 오는 27일 ‘지구정원사 가치사전’(동연) 출간 기념 저자 릴레이 토크 행사 ‘살림 연구소 에코살롱(포스터)’을 연다. 책은 신학자 50명이 공동 저술한 생태 에세이집이다.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활용한 이번 행사는 조은하(목원대) 신현태(장로회신학대) 교수 등 6명의 저자가 참여한다. 박성철 교회와사회연구소장과 방기민 강남대 강사도 이날 행사에 참여해 ‘생태위기 시대의 가치체계 전환’ ‘성서로 본 기후변화와 이주’를 각각 강연한다.

살림은 이번 행사 이후에도 저자 릴레이 토크를 연달아 개최한다. 지난달 24일 장로회신학대 학생과 저자 4명을 초대해 시작된 릴레이 토크는 이번 행사를 거쳐 다음 달 13일에는 이화여대 교목실과 협력해 온라인으로 열린다. 다음 달 행사에서는 장운재(이화여대 기독교학과) 교수 등 저자 3명이 참석한 교·이수에는 연세대 신학과와 협력해 행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행사는 살림 블로그에 게시된 구글 문서로 신청서를 제출해 줌 접속링크를 받는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다.

## “전 교회·신자의 선교사회 운동에 힘쓰자”

### 한인세계선교사대회, 보전 등 선교사문제 해결 돕기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한국선교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한인세계선교사대회가 13일 경북 포항 한동대에서 개막됐다. 대회를 주최한 한인세계선교사회(KWMF·대표회장 최근봉 선교사)는 전세계에서 활동하는 해외선교사가 가입된 국내 최대 선교사 단체다.

개막식에서 장순홍 한동대 총장은 “지난 40여년간 미국에서 개최되던 한인세계선교사대회가 최초로 한국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대학 한동대에서 개최된 것은 큰 영광”이라고 감사 인사를 했다. 이어 “모든 크리스천은 선교의 사명자로, 각자 맡겨진 달란트를 최대한 발휘해 제자를 양성하고 차세대와 현지 선교사를 양성해야 한다”면서 “이번 선교사대회가 세계선교에서 차지하는 한국선교의 위치를 확인하고 복음의 서진을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 총장은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선교사들은 새로운 선교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한다”면서 “한동대는 최근 글로벌사명원을 개설하고 보건 의료 법률 상담 복지 아동지원 등 선교사들이 직면한 16개 분야의 문제해결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 목사는 영상축사에서 “코로나처럼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기성 이재훈 이찬수 목사도 영상축사를 보냈다.

이어 ‘성찰의 선교적 리더십’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 이용용

전 태국선교사는 “코로나시대 선교사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 더욱 급진적 선교가 필요하다”면서 “이것은 과격한 선교를 뜻하는 게 아니다. 복음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복음을 담는 그릇을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조언했다.

강승삼 전 한국세계선교협회의 회(KWMA) 사무총장도 “선교의 동기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그 운동의 동기는 아가페 사랑에 있다”면서 “우리 크리스천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해야 한다. 전 교회의 선교사회 운동, 전 신자의 선교사회 운동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 이란에 페르시아어 성경 1770부 보내

### 대한성서공회, 서울광염교회 후원 기증식 열어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는 서울광염교회(조현삼 목사) 후원으로 이란에 페르시아어 성경 1770부를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기증식(사진)은 지난 6일 경기도 용인의 대한성서공회 반포센터에서 열렸다.

이란은 인구의 98%가 무슬림인 이슬람 국가로 기독교 선교와 예배가 금지돼 있다. 이 가운데 소수인 이란 기독교인은 종교적 차별을 받고 있지만, 기독교 신앙을 갖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서울광염교회가 기증한 페르시아어 성경은 땅끝까지 전할 사명이 있다”고 강조했다. 유기성 이재훈 이찬수 목사도 영상축사를 보냈다.

이어 ‘성찰의 선교적 리더십’을 주제로 토론에 나선 이용용

저녁 집회에는 조정민 베이직교회 목사가 본질로 돌아가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강증자로 나선 이투디아 인도 선교사는 “지난 760년간 한 번도 기독교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았던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하다 보니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납편의 교통사고와 항암치료 등 반복되는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함을 깨달았다. 고난의 상황에서 계속 전진할 때 열매를 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최 측은 코로나 예방을 위해 PCR 음성 확인자만 입장을 허락했다. 대회에는 360여명의 선교사가 참석했으며, 선교사 자녀 출신 한동대 학생 160여명이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16일까지 열리는 대회는 유튜브 ‘한동대학교회’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무슬림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는 일이 매년, 매일 일어나고 있다”며 “여러분의 도움으로 세신자가 된 이들에게 성경을 보급할 수 있게 됐다”고 영상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최규환 서울광염교회 성경반포 사역담당 목사는 기증식에서 “한국교회와 대한성서공회가 협력해 세계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광염교회는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목표로 교회 내 ‘성경반포운동’을 조직해 해외 성경보급 운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현재까지 마다가스카르와 볼리비아 탄자니아 말라위 이란 5개국에 성경 후원을 진행했다.



### 왜 교도소 문서선교여야 하나요? (6)



이영희 목사  
교도소 교육, TPPM대표

#### 출판에 따르는 현실적 상황

나의 남편 키스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갑자기 사망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남기고 간 생명 보험금을 출판을 위해 사용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알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며 의아해했다. 하지만 나의 대답은 간단했다. “사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돈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상처 받은 영혼들을 돕기 원

하신다. 만일 하나님이 내가 퇴직을 한 후 아무 여유 돈이 없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를 돌보실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한 재소자라도 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한다면, 그들에게 치유와 소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만일 보험금의 권리가 나에게 주어졌다면 아마도 나는 그 돈을 가족들을 돕는데 사용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하

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 나의 어머니는 살아 계셨을 때 사역자들에게 돈을 전해주시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내게, 나의 필요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채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 당시 나는 아일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돈을 준다면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어머니는 주님께 순종해야 함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친히 나의 모든 필요를 장학금으로 다 채워주셨다. 나는 어머니의 뜻을 이해하며 나도 어머니와 같이 주님께 순종하

도 없지만 너에게는 물질적 여유가 있다.” 그녀는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있었다. 남편에게 학대를 당하는 상황에서 자신을 방어하다가 결국 경찰에게 체포가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녀와 많은 재소자들이 그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했다.

내가 보험금을 사용하는 동안에는 출판을 위한 모금을 해야 한다는 걱정이 없었다. 그 돈은 여러 해 동안 잘 쓰여졌다. 하지만 결국 모두 다 지출이 되었다. 그리고 문서선교 사역으로 들어오는 기부금은 지속적인 것이 아니라 한번 정도 들어오는 것이어서 출판

재소자들을 위해 책을 배포하는 일에 있어서 자금지원이 있다. 하지만 내게는 그런 여유가 주어지지 않았다. 나는 아담스카운티 교도소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당으로 보수를 받고 있으며 내게는 직장에서 주는 건강보험이나 퇴직금이나 어떤 혜택도 없다. 재소자들에게 무료로 책을 배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에 대한 교도소의 자금 지원이 전혀 없다.

#### 가치로운 일을 위해서

“만일 제가 돈을 내고 교도소 목사를 해야 한다고 해도

모두 현실이 된 것이다. 재소자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신앙사역을 배포하는 일은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다. 그리고 남편이 남겨준 보험금으로 출판을 한 것은 재소자들을 돕기 위해 지불한 대가였다.

교도소에는 너무나 많은 재소자들이 있기 때문에 체류한 한 사람이 재소자들을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만일 교도소 문서선교의 책이 없었더라면 그들을 효과적으로 돕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감사하게도 책은 아담스카운티 교도소뿐만 아니라 다른 교도소의 체류한 재소자들에게까지도 전달이 되어 그들도 도울 수가 있

만일 하나님이...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그 길을 갈 것이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를 돌보실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다.

려고 가족들만 도우려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했다.

하나님은 내가 당신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하시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나를 도우신다. 한번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셨다. “저 여인을 보아라. 그녀에게는 단돈 5불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남편의 보험금을 다 사용한 이후에는 출판을 위한 재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내가 남편의 보험금을 출판에 사용하는데에는 또 다른 이윤이 있었다. 어떤 교도소 목사는 카운티에서 정 직원이며,

저는 이 일을 할겁니다.” 돌이켜보니 내가 직장상사였던 프랭크에게 한 이 말은 나의 현실이 되었다. 나는 교도소 재소자들을 돕는 나의 일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무려 18년 전에 무심코 한 말이 2021년 인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었다. 나는 교도소 사역을 통해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다. 더불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내가 그러한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 yonghui.mcdonald@gmail.com

### One Story 21세기 말씀의 삶

#### 홍요셉 선교사 | (P국, 중동선교전략가)

### 원 스토리 10강 / 이삭(창 22, 26-28장) II

#### 아내가 아닌 누이

아브라함이 up and down을 반복할 때 두 번이나 치명적으로 바다를 친 사건이 바로 ‘이복 누이’이지만 아내인 사랴를, 아내는 빼고 ‘누이라고만 한 것’이었습니다(창 12:11-13, 20:2).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심한 up and down이 없이 순종하게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던 이삭의 삶에도 결정적인 실수가 등장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아내 리브카를 아내가 아닌 누이라고만 속인 것입니다(창 26:7).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그러하신 것처럼 이 때에도 이삭을 그랄 왕의 손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창 26:8-11). 분명 잘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과는 달리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실수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또한 이삭의 이 실수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하신 하나님의 명령(창26:2)과 그에 순종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다’는 결과(창26:12) 사이에 등장하여 이삭의 순종이 이삭 자체의 의가 아님을 성경은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후 이삭은 자신의 소유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창26:14) 그들에 의해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판 우물이 흠으로 메워지는 일을 당합니다(창26:15). 그런데 이삭은 다함과 시비를 피해 다시 우물을 판다(창26:18).

그리고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의 다함이 생기자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 우물을 판다(창26:22). 모든 상황을 눈에 보이는 자들의 다함에 묵이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삭의 삶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려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인물들의 예표적 삶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어느 누

구도 출생부터 죽음까지 삶 전체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는 없습니다. 그들의 삶의 부분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함을 피해 옮기고 옮겨간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창21:22)’라고 했던 것처럼 다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장관 비골과 이삭에게 와서 말합니다. 이 두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기보다는 동일한 지위를 가진 사람들로 보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고 경고하시는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과는 달리 인간의 연약함에서 오는 실수는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창26:24).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평생을 지킨 것과 같이 내가 함께 있을 것이고 네 자손의 번성을 위해 ‘내가 네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창15:1)’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너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창26:28).

이와 같이 세상 왕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것입니다(단2:47, 3:29, 6:26,27). 세상의 힘과 부귀는 가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과 군대장관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본 하나님의 함께하심

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미 우리가 살펴본대로 아브라함의 삶도, 이삭의 삶도, 가인의 후손인 ‘네페림’이나 함의 후손인 ‘니므롯’처럼 화려하지도 뛰어나지도 않았습니

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면을 보았기에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했을까요? One Story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삶’일 것입니다.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구별되는 삶일 것입니다. 그 up and down의 삶 중에서도 세상에서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서 점점 하나님께로 가는 삶이 세상의 왕과 군대장관의 눈에는 ‘다름’으로 비쳐졌을 것입니다.

이삭의 삶도 그렇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않음으로 농사

의 삶이 바로 그와 같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늘 요동치 않으시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가진 무엇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것(요 14:27)을 소유한 삶,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삶(히11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후 이삭은 에서와 아곡을 축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지만 이 이야기는 이어지는 아곡편에서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마치 아브라함이 그의 삶에서 요동을 겪고 난 뒤에 찾은 평온함 같은 삶을 살았던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180살이라는 나이로 분향으로 돌아갑니다(창35:29). 에서와 아곡의 축복 사건 때가 이삭 131세라는 것을 놓고 보면(이 나이 계산은 아곡편에서 하겠습니까) 남은 50여년의 시간은 이전에 그랬듯이 평온한 마무리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삭에 대한 마지막 성경의 평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창31:42,53)로 ‘그의 열조에게도 돌아갔다’(창 25:29)의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이야기, 이제 아브라함을 지나 이삭을 넘어 아브라함과는 또 다른 up and down을 반복했던 아곡의 이야기로 ‘One Story’ 계속 이어집니다.

hfamilya@gmail.com

### 건강 길라잡이



이명직  
내과전문의

#### 요로 결석

과거에는 입원이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던 질병이 지금은 의료기술 발달로 입원 없이 치료 가능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심혈관 질환인데 과거에는 장기간 입원이 필요하고 복잡한 수술이 필요했으나 요즘은 단기간 입

원만으로 치료된다. 요도에 돌이 생기는 질환인 요로 결석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입원 없이 간단한 시술로 치료할 수 있다.

-시내에서 대형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정 모 씨는 1년 전부터 왼쪽 옆구리가 가끔 결리

는 것을 느꼈다. 어떤 때는 통증이 심해 잠을 자다가 깰 정도였지만 또 다른 때는 통증이 없어서 일상생활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다. 하지만 통증의 횟수가 3개월 전부터 증가했고, 정도도 더 심해졌다. 일주일 전부터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또 속이 메

혈뇨血尿가 현미경 상에서 관찰되었고 세균은 없었다. 복부 방사선검사와 초음파검사에서는 약 1센티미터 크기의 요로 결석이 발견되었다. 정 씨는 체외 충격과 쇄석술로 좌측 신장, 요로 부위에 있는 결석을 깨뜨리는 치료를 받았다. 치료 후 통증은 씻은 듯이 사라졌다 -

에 따라서 통증이 유발되는 위치가 다르다. 속이 메스꺼운 이유는 신장과 장관을 지배하는 신경이 같

기 때문이다. 요로 결석은 주로 40대 중반 이후에 많이 생기고, 남자가 여자보다 2:1의 비율로 흔하게 발병한다. 또 남자의 약 10%, 여자의 5%

적게 섭취하는 경우도 요로 결석의 위험이 크다. 흔히 요로 결석이 생기더라도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경우 결석이 저절로 소변으로 배출되는 경우도 있지만 위의 증례처럼 돌의 크기가 크고 상부 요관에 위치한 돌인 경우 자연 배출이 되지 않는다.

남자는 요로 결석이 치료되더라도 재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로 결석의 증상과 예방법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악성 신장암이나 급성 장염 등의 내과 질환도 요로 결석의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위의 증상이 나타나면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383-9388

#### 고단백 식사와 수분 적으면 위험 높아

요로 결석은 몸속에 소변이 흐르는 길 즉, 신장, 요도, 방광에 생기는 돌을 말한다. 요로 결석에 의한 통증은 돌의 움직임에 의해서 요로가 수축을 해서 생기는 것이고, 돌의 위치

에서 일생에 한번은 요로 결석이 생길 정도로 흔하다.

원인은 유전적인 경우와 환경적인 원인이 복합적인 경우가 많다. 요로 결석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위험이 2.5배 증가하고, 고단백 식사와 수분을



## 매일가정예배

김덕수 목사(하늘소망교회/ 생터사역원 LA지부장)  
dsukim@gmail.com

### 월 두 계절(창4:25, 5:32)찬1장

아벨이 죽임당한 후 인류는 두 계절로 나뉘었습니다. '셋계열'과 '가인계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임당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예배공동체의 대표자를 주셨습니다. 에노스 때에 사람들은 여호와와 이름을 불렀다(하나님을 예배하였다)고 합니다. 이른바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계열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자신들의 왕권을 내세우며 살았던 가인계열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담의 후예는 셋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5장에 등장하는 아담의 족보로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는 가인을 타고 흘러가지 않고 셋을 타고 흘러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예배자를 인정해주시니. 우리는 셋 계열에 속한 사람들로서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힘을 다하여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 화 심판의 이유(창6:1-8)찬320장

하나님의 아들들(셋계열의 예배공동체)이 사람의 딸들(가인계열의 세상공동체)과 섞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 가치관, 생각, 방법과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섞인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세상에 악인들이 넘쳐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인 것은 성도가 거룩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과 섞이는 것입니다. 홍수심판의 이유는 악인들의 죄악이기도 했지만

만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과 섞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 눈에 그럴듯해 보이고 능력과 힘이 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방법과 가치들이 좋아 보인다면 과감히 그것과 단절을 선포하십시오.

### 수 방주의 설계도(창6:13-22)찬546장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는 3층짜리 거대한 나무상자처럼 생긴 길이 300규빗(약135m), 너비 50규빗(약22.5m), 높이 30규빗(약13.5m) 건물 7층 높이의 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장치들이 없습니다. 동력장치(돛, 노 등)나 조향장치(키)가 없습니다. 온전히 물에 떠 있는 기능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방주와 같이 우리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도록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또 방주는 역경으로 방주작업을 해야 합니다. 역경의 원어적인 뜻은 몸값, 속전, 역청 등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보혈로 안팎을 덮을 때 비로소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성도가 됩시다.

### 목 969년의 기다림(창7:1-12)찬527장

방주가 다 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짐승들과 자신을 포함한 그의 가족 8명이 방주에 탑승했을 때(노아가 600살이던 2월17일), 엄청난 해저 쓰나미와 더불어서 하늘의 창이 열리는 듯한 엄청난 폭우가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라고 특정하시는 그 해는 므두셀라(그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보내신다'라는 뜻)

가 969세로 죽던 해입니다. 므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87+182+600=969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두셀라'의 이름을 통하여 심판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969년을 기다리셨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갑시다.

### 금 무지개 언약(창9:1-17)찬382장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 인류의 또 다른 시조가 된 노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은 아담에게 주셨던 복과 같은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 쏟아진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 하늘에 무지개를 걸

어두시며 사람과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영원히 유효하고 영원히 변경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입었던 그 은혜(창 6:8)를 하늘에 걸어두시며 그 언약이 노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에 매 순간 감격하며 삽시다.

### 토 바벨탑, 인간판 방주(창11:1-9)찬305장

니므롯이 우두머리가 된 공동체는 시날땅에서 바벨탑을 쌓습니다(창10:8-10). 그 탑의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고 합니다. 벽돌과 역청, 그리고 진흙을 사용해 견고하게 짓자고 합니다. 바벨탑은 인간판 방주였습니다. 만약 홍수심판이 또 임한다면 그것에 대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높은'(창11:4) 거주지를 건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방주처럼 물이 들어오

지 않도록 '역청과 진흙(창11:3)'으로 방주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홍수심판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후손은 심판을 겪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겠다는 것이 올바른 반응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들의 힘으로 막으려고 시도했습니다. 범죄한 후에 받을 심판을 면할 대책을 준비하지 말고 거룩한 삶에 힘쓰는 성도가 됩시다.

##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3)

### 크리스천들에게 은퇴는 없습니다

이제 다니엘 5장으로 넘어간다. 그 유명한 벽위에 손가락이 나타나 글자를 쓰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온다. 느브갓네살 왕의 손자인 벨사살 왕 시기에 일어난 일이다. 일전에 얘기한 대로 바벨론의 최전성기는 느브갓네살 왕이 통치했던 시기였는데 그가 죽은 후 아들인 나보니더스가 왕위를 이어 받았으나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고 그의 아들 벨사살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지만 벨사살은 그의 조상과는 달리 참으로 무능하고 향락에 빠진 채(단5:1, 그가 귀족 천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벌였음을 기억해보라), 세월을 허송하다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 죽음을 당하고 이를 계기로 바벨론 왕조는 역사 속으로 쓸쓸히 사라지게 된다. 하여튼 다니엘은 느브갓네살 왕 사후 공직에서 물러났고 벨사살 왕 이후 즉위나 행정상의 직책을 갖지 않은 채 잊혀진 존재였음을 알 수 있다.

노년들은 잊혀진 존재가 아니다. 노년의 그리스도인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일 줄 모르나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어져야 하는 존재이다.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은퇴가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세상에서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다. 성경에서 은퇴를 이야기한 것은 민8:24-26이 유일하다.



이희갑 목사  
(아주사범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다니엘 5장은 이제 노년이 된 (80대 초반) 그를 발견한다. 이제 그도 백발이 연연한 노인이 되어 그의 인생을 반추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계수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베풀 때 사람의 손이 나타나 글자를 쓰게 되는 이 놀라운 광경 앞에 다니엘은 또 한번 왕 앞에 불러 나간다. 그리고 그는 손으로 쓰여진 글자(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를 해석한다. 그

“레위인은 25세 이상으로 회막에서 봉사하고 50세부터는 쉬어라” 이를 Adam Clarke 주석서는 이렇게 해석한다. “성경은 5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강제하지 않았지만 50세 이후의 레위인들은 일반적으로 감독하거나 상담해주는 일을 계속함으로 젊은 레위인들이 더 열심히 책임 있게 일하도록 독려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사실 성경은 전 생애에 걸쳐 하나님의 일을 수

### 노년이 아름다웠던 비결은 끊임없이 자신 발전시켜 자기관리로 품위 잃지 않고 존경과 공경의 대상 돼

의 해석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하자.

하여튼 그의 총명함을 보라. 80대 나이에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는 그의 자세와 용기 그리고 학식의 풍부함, 과연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는 당시 최고 지혜자들이 읽지 못한 손가락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었다. 즉 80이 넘는 나이임에도 그는 자신의 능력을 부단히 개발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그는 벨사살 왕을 느브갓네살 왕과 견주어 나무라고 훈계한다(단 5:22-23). 80대 노인이 혈기 왕성한 30대 초반이었던 당시 왕을 훈계하는 상황을 그려 보라. 바로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불의에 과감히 맞서며 진리를 전파하는데 조금의 두려움이 없었던 우리의 영웅 다니엘! 그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이었다.

세상은 벨사살 왕처럼 늘 믿음에 반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상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며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찌렁찌렁한 목소리로 훈계하는 노년세대들의 책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다. 디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늙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권면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

필자는 여기에서 감동한다. 후세의 잘못을 꾸짖을 줄 아는 노년의 용기를 가진 다니엘! 그렇다.

행한 사람들의 기록이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일하다 죽었고(수24:29) 사도 요한은 90세까지 일을 했고 요한계시록을 저술함. 모세는 120세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고 갈렙은 85세의 나이에 담대하게 헤브론을 정복하겠다고 외쳤다. 그러기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잠 16:31)이라 성경은 기록한다. 다니엘도 그랬다.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공직에 있었다(단1:21). 무슨 말인가? 벨사살 왕 때 공직에 떠났던 다니엘은 페르시아 왕조 고레스 왕 때 다시 한번 수석총리로 8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한번 공직에 오르게 된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찬란한 꿈을 꾸고 메시아의 도래를 예견한다. 그리고 그의 꿈대로 인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였다.

우리는 노년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비결이다. 노년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나를 늘 내어주고 하나님이 쓰시도록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갖고 닦은 지혜, 지식, 능력, 리더십, 헌신, 시간, 자료 등을 최대한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자.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역은 안식년은 있어도 은퇴란 없는 것! 가장 아름다운 사역은 바로 지금 눈앞에 놓여져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나이, 조건과 상관없이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신다.

(16면으로 계속)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원내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선/교/간/증

이하루 목사

유럽에서 통일선교를 하다(1)

저는 2009년까지 서울 강남 00교회 부목사로 사역을 하였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하나님께 약속했던 윗마를 선교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해 9월에 교회사임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그해 1월부터 윗마를 선교지에 나갈 꿈에 한껏 마음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러던 2월 어느날 둘째 출산을 준비하던 날, 21개월 된 첫째 아들이 갑자기 심장병으로 중환자실에 실려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심장 박동기를 달아야 하며, 그렇게 않으면 걷거나 달리기도 할 수 없고, 성장도 안된다는 닥터의 말에 마음이 막혔습니다. 당장 수술도 할 수 없는 것, 첫째가 전염병 로타 바이러스에도 걸려 있어서 일단 중환자실에 격리하고 수술 날짜를 잡자고 하였습니다.

말썽하던 아들이 갑자기 심장병에 중환자실에 격리된 것을 보면서 저는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들은 것은 아닌가! 선교사로 헌신한 나에게 이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인가! 하나님이 뭘 실수하고 계시다는 생각에 따져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선교 나가겠다고 헌신했는데 어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주십니까? 제가 선교지나 가지 말라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매일 교회 새벽예배를 인도하면서 저는 그렇게 새벽 제단에서 울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 가며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아들의 치료를 놓고 기도하던 어느 날, 찬송가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을 찬양하다가 저는 하나님의 명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천지에서 가장 복된 예수 이름을 지어주면서 제 아들의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할 것이라

는 생각에 마냥 행복했습니다. 아들을 보면 "아들아, 넌 하나님과 같은 복된 이름을 가졌어!"라고 그 이름을 자랑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101장을 부르면서 충격에 빠진 것입니다. 1절까지 관촬했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그렇지 내아들의 이름이 이렇게 높아져야지 아들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죽을 리 없어!"라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2절을 불렀습니다. '주 심자가에 달릴 때 명패 쓰인 대로 곧 유대인의 왕이요 곧 죄인의 왕이시라'

이 가사에 저는 머리와 무릎을 두드려 맞듯이 저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복을 받는 이



름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죄인들의 왕으로 심자가에 달려 죽으라고 지어진 이름이었습니다. 그것도 나시기 전에 이미 그렇게 삶이 예정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저도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었는데 이 가사가 아들 미래를 예고한 듯 했습니다.

"내가 이름을 잘못 지었구나! 형통은 고사하고 내 아들 예수님처럼 죽게 생겼네~!" 성도들을 앞에 두고 새벽 찬송을 인도하다가 눈물을 왈칵 쏟았습니다. 인도자여서 찬송

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찬송을 부를수록 찬송 가사가 아들의 미래로 해석되면서 머리에 들어오는데 머리와 다리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그 새벽에, 예수 이름 지어 주면 인생 행복하게 살아가리라 생각했던 그 영적 교만을 깨닫고 '내가 붙여서는 안 되는 하나님 이름을 내 아들에게 붙였구나~! 정말 내 아들이 예수님처럼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 눈물로 오열을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제 축복받는 데 쓰려 했어요! 예수님 용서해주세요! 제 아들이 그래서 지금 죽어거나 봐요! 하지만 그 죄는 제 죄니까, 아들을 죽이지 마시고 아들의심장과 제 심장을 바꿔서라도 제가 죽고 어린 아들은 살려주세요!" 기도하였습니다.

또 어느날 '예수님 사랑을 전하자'라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님 사랑이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3년 동안 모 선교단체를 통해서 아프리카 아이에게 매달 3만 원씩 정기후원

을 하였습니다. 후원하던 아이로부터 일 년에 몇 차례, 편지와 사진이 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냉장고에 그것을 붙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답신 쓸 시간이 없어! 너는 나를 만난 것 자체가 행운이야! 매월 정기 후원을 끊지 않는 것만으로도 넌 내게 감사해야 돼!" 그런 생각으로 답신 한 장, 기도 한번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너는 그 소년에게 단 한번이라도 사랑을 준 적이 있느냐?!"

(16면으로 계속)



이재근 목사 (미주가정선교회 대표)



36.가정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인 가정선교를 통한 가정의 복음화와 전가족의 구원을 위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었다면 가정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누구나 다 감당해야 할 거부할 수 없는 필수사항이며 의무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5가지 복'을 주셨는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

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정선교를 통한 전가족 구원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백함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모두 저주와 심판을 받은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은 온 인류가 가정선교를 통하여 다 가족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기생 라합의 가정(수2:18-19), 롯의 가정(롯1:4), 욥의 가정(욥1:1)과 신약에서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행10:2,24), 자주장사 루디아의 가정(행16:14-15), 빌립보 간수의 가정(행16:31-34) 등 이방인의 가정들도 모두 구원 하셨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인간의

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딤후3:5)라고 하여 교회감독의 자격에 대하여 말했으며, "주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고 하여 빌립보 간수의 가정을 구원케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고 유언적으로 부탁,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을 성경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보고, 지리적으로는 로마나 서바나(롬15:23)로 보지만 영적, 선교적 차원에서는 '영적, 선교적 차원에서 땅 끝은 '가정'...주님 지상명령 행해야 가정선교는 사탄의 말세기적 작전 '가정 파괴'에 기독교적 응답

영적, 선교적 차원에서 땅 끝은 '가정'...주님 지상명령 행해야 가정선교는 사탄의 말세기적 작전 '가정 파괴'에 기독교적 응답

물을 다스리라"(창1:28)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에덴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먹음으로, 인간은 저주받아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 땅에 죄악이 관영함과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며(창6:5-6)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정을 구원 하였고(창7장)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도덕적 타락을 보시고 유황불로 심판하셨지만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고(창19장)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구원의 역사를 약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정적 교훈을 많이 하셨습니다. 공생애 첫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요2:1-11), 사역을 마무리하고 십자가 고난의 앞에 두고 혼인잔치의 비유(마22:1-14)와 열처녀의 비유(마25:1-13)를 말씀하셨고,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찾아온 모친과 동생들에 대하여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마12:50)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딤후5:8)고 하여 신자들의 가족 구원에 대한 참 두려운 말을 했고,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

가정'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사탄의 말세기적 작전이 '가정 파괴'에 있고, 마귀의 가정 파괴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대한 기독교적 응답과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파괴된 가정의 회복과 영적 결혼가정과 가족구원에 있고,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이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땅 끝까지 이르러 가정선교를 위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jaekunlee00@hotmail.com (562) 714-0691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라홍채 목사

세미나 안내

1.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2. 70이레
3.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최소 필요충족상태에 만족하면 행복하다!

## Slate, 사보라인엔 교수가 말하는 북유럽국가들의 진짜 행복지수 보도

‘취계’라는 단어를 들어봤는가? 덴마크인들이 편안하고 아늑한 느낌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 단어는 덴마크인들의 행복의 비결로 오랫동안 여겨져 왔다. 몇 년 전에는 취계에 관한 책과 기사, 가정용품들이 나오기도 했다. 전 세계의 언론인들이 덴마크를 방문하고 이들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전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덴마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로 뽑혔다는 사실 또한 일조했다. 하지만 최근에

취계 열풍이 잠잠해진 것은 세계 행복지수에서 나의 모국인 핀란드가 덴마크를 4년째 앞서고 있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지난 3월 발표된 순위에서는 덴마크가 아이슬란드를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핀란드와 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여러 언론들은 핀란드 행복의 비밀로 취계보다 훨씬 어렵고 복잡한 단어인 ‘칼사리캔니(kalsarikännit)’를 이야기한다. 이 단어는 ‘팬츠드링크(pantsdrunk)’, 곧 집에서 혼자 속옷만 입고 술에 취해 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만약 이게 정말로 행복의 비밀이라면, 그렇게 비밀인 상태로 그냥 두는 게 나을 것 같다.

핀란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에 가장 반발할 사람들은 다음 아닌 핀란드 사람들이다. 물론 핀란드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행복 순위만이 아니다. 교육시스템 역시 1위이며(전혀 사실이 아니다), 부패지수도 1위이고(이건 그럴 수도 있다),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에서도 1위이며(음...). 그 외에도 여러 부분이 있다. 하지만 행복순위라니? 이코노미스트지에는 핀란드 총리가 국제회의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의 대표입니다”라고 소개받았을 때 그가 이렇게 답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나는 다른 나라가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지도 않네요.”

핀란드가 늘 그런 국제적인 평가를 가졌던 것은 아니다. 1993년, 내가 뉴욕에 막 도착했을 때 미국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60분(60 Minutes)”은 핀란드 헬싱키에서 출근 중인 이들을 보여주며 이렇게 묘사했다. “이 모습은 지금이 핀란드의 국가에도 기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저 핀란드인의 평소 모습입니다. 조용하고 개인적이며 다른 이들과는 어떤 접촉도 싫어하는, 지상에서 가장 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우울한 상태로 있으면서도 이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핀란드인의 표정

인테리어 가게들에서 취계 스타일의 양초들이 모두 할인코너로 옮겨졌다.

사보라인엔(Jukka Savolainen), 미시건 웨인스테이트대학 형사법 교수는 북유럽 국가가 행복한 진짜 이유를 말해준다(The Grim Secret of Nordic Happiness: It's not hygge, the welfare state, or drinking, It's reasonable expectations).

혀 무관하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그저 사람들에게 자신이 상상 가능한 수준의 0에서 10까지의 단계를, 가능한 최고의 삶을 10으로 그리고 최악의 삶을 0으로

를 받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한다면 핀란드는 확실히 괜찮은 나라다. 빈곤율은 낮고 흡리도도 많지 않으며 다른 물질적 결



### 행복은 기쁨, 사랑, 주변인과 의미 있는 관계 포함해야

만을 관찰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는 없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조금 우울한 표정을 다들 짓고 있다. 만약 행복지수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매긴다면, 핀란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나라 중 하나일 것이다.

이는 매년 발표되는 전 세계 행복지수가 사람들의 웃음소리나 기쁨의 표현 같은 것과는 전

상상하게 하고 자신이 현재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물을 뿐이다. 즉, 자신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삶에 가까울수록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 가정하는 것이다. 여기에 어떤 기쁨이나 환호는 전혀 필요하지 않다.

이런 감정과 무관한 행복의 정의라면, 핀란드가 높은 점수

를 받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한다면 핀란드는 확실히 괜찮은 나라다. 빈곤율은 낮고 흡리도도 많지 않으며 다른 물질적 결핍 또한 크지 않다. 사람들은 충분히 높은 수준의 교육과 의료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육아 휴직과 유급휴가 또한 충분히 길다. 전문가들은 아마 이런 이유로 핀란드, 덴마크 그리고 다른 북유럽 국가가 높은 행복지수를 기록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이야기가 있다.

우리는 이 행복지수의 측정이 바로 사람들의 기대치에 기초한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북유럽국가들은 루터파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에게 가능한 최선의 삶에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 문화가 있다. 이는 북유럽 사람들이 개인의 성공을 따질 때 생각하는 안테의 법칙(Law of Jante)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 법칙은 “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너 자신을 남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너는 무엇이든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등으로 이뤄져 있다. 이는 1930년대 사회학자 로버트 K 머튼이 미국에서는 “부의 축적이야말로 성공의 지표”라고 말한 것에 크게 대비된다.

북유럽국가들은 국민들에게 괜찮은 삶을 제공하고 있으며, 누구도 물질적으로 아주 힘든 삶을 살지 않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의 미래에 너무 높은 기대를 가지지 않도록 하는 문화 또한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10단계의 사다리는 적당히 높은 0단계와 아주 좁은 간격을 가진, 그래서 꼭대기가 그리 높지 않은 사다리가 된다. 사람들은 또 자신의 삶이 충분히 좋은 것이라 서로 이야

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이런 특정한 행복지수에 높은 점수를 받는 이유가 바로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화적 차이를 나타내는 단어는 취계도, 칼사리캔니도 아니다. 내가 이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스웨덴어와 노르웨이어에 존재하는 “라곰(lagom)”일 것이다. 이 단어는 너무 적지도, 많지도 않은 양을 의미하며 “적절한(just the right amount)”, 또는 “분수”로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덴마크인들의 삶을 취계로 표현하는 것처럼 스웨덴의 문화는 라곰으로 표현한다. 하지만 실제로 라곰은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전체의 문화를 표현하는 단어다. 좋은 삶에 대한 기대의 측면에서 본다면, 라곰은 최소한의 필요만을 충족한 상태에서 만족하기를 강조한다. 만약 당신이 이미 그런 필요를 충족했다면 이제 더 이상 불행하지 말라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은 이제 행복한 것이다.

하지만 이게 정말 행복일까? 그렇다면, 미국의 부모들은 아이에게 더 높은 목표를 가지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랑하는 아이야, 너도 언젠가는 대통령이... 아니 동대표가 될 수 있어.” 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만약 그런 것이 행복이라면 나는 그 행복에 만족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행복이란 기쁨, 사랑,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의 의미 있는 관계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수십 년 간 몇 번씩 모국 핀란드로 귀국할까를 생각했지만 내가 여전히 미국에 남아 있는 이유가 있다. 나는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그리고 이웃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좋아한다. 그것이 내게는 행복이다.

맛다. 나는 핀란드, 덴마크, 아

기한다. 바로 이러한 마음가짐 때문에, 핀란드 사람들은 좁은 아파트에서 적당한 수입으로 살며, 높은 물가와 세금 때문에 별로 소비를 하지 못하지만 - 그리고 아이슬란드처럼 월드컵에도 진출하지 못하지만! - 자신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다니엘 영성 프로젝트

(14면에서 계속)

노년이 아름다웠던 다니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는 끊임 없이 자신을 발전시켰다. 80중반의 인생을 살면서 그는 하루 세 번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악과 타협하지 않았으며(그가 노년에 사자 글속에 던져졌음을 기억하라), 철저히 자신을 관리하였다(단6:3, 그는 마음이 민첩했다). 노년이 되어서도 그는 품위를 잃지 않았으며 존경과 공경의 대상이 되었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노년의 세대가 지혜와 명철로

가득 차게 되기를(욘12:12) 원하신다. 노년의 세대를 핑계하지 말기를 기도한다. 늙어서, 힘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시간을 헛되이 보내거나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한다.

노년의 세대는 젊은이들에게 끊임없이 귀감을 보이고, 비전을 이끌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존경받는 모습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에 이시형 박사는 그의 책, “어른답게 삼시사에서 “나이가 든다는 것은 숫자가 보태지는 만큼, 더 풍요로워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렇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은퇴는 없다!

hlee0414@gmail.com

### 선교간증

(15면에서 계속)

“그런 내가 사랑을 전할 수 있겠느냐? 사랑 타령하는 내가 얼마나 편협한지 아느냐? 네 아들을 위해서는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그 아프리카 아이를 위해서는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을 아느냐? 죽어가는 윗마을 자녀들에 대해서도 기도 정보는 나누었지만 한 번도 진실한 눈물로 기도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아느냐?”

“내가 윗마을 선교사로 나가면 얼마나 윗마을 자녀들을 차별하지 모르겠다. 상처받고 가난한 윗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은 고사하고 상처만 주는 선교사가 될까 걱정이다.”

“윗마을 선교사로 헌신한다고? 사실 그것도 네 자아실현을 위한 도전이고, 영웅심에 따른 믿음이다. 네가 어떻게 상처받은 윗마을 자녀들을 위로하고 사랑할 수 있겠느냐? 배고픔보다 더한 굶주림으로 고통당하는 그들의 심정을 아느냐? 굶어 죽는 자식을 보는 엄마의 심

장을 아느냐? 죽은 부모를 집 마당에 버려두고 쓰레기 음식을 찾아서 떠다니는 꽃채비 자녀들을 네 아들과 구분 없이 사랑할 수 있겠느냐? 매일 밤 수천 명씩 수만 명씩 굶어 죽어가는 자녀들을 보는 나의 마음을 네가 알겠느냐?”

저는 제 삶의 가식과 허영심을 깨닫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제 헌신의 교묘함을 알았습니다. 제 사랑이 차별됨을 알았습니다. 윗마을 선교사 지원은 했지만 정작 윗마을 선교사 자질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선교단체 훈련받으면 선교사가 되

는 줄 착각한 저를, 하나님은 그렇게 아들의 심장병 앞에서 깨뜨리셨습니다.

너는 네 아들 하나만 사랑하는 거짓 사랑꾼이라는 말씀에 저울면서, 저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차별하지 않고 윗마을 자녀들을 사랑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아픈 아들을 위해서 윗마을 자녀들을 위해서 선교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픈 아들을 데리고 윗마을 선교로 나왔습니다.

iharu2157@gmail.com

# 그레이스미션대학

## GRACE MISSION UNIVERSITY

총장: 최규남 박사 | 이사장: 한기홍 목사

학위과정	교차문화학 철학박사(PhD in ICS) 선교학 박사(D.Miss) 목회학 석사(M.Div) 기독교 교육학 석사(MACE) 선교학 석사(MA ICS) 기독교 상담학 석사(MA CC) 신학학사(BA) 기독교 상담학 학사(BA CC)
특혜	유학생 I-20 발행 연방정부 장학금 및 학비유자(FSA) GMU 장학금 & 국제총회 교단 장학금 수여 미국 유수 학교들과의 학점 교류 통신(on-line)으로 학위 취득 가능 영어권 학생을 위한 English Track 운영 Moodle 통신 수강 시스템을 통한 수업 실시간 동시 Live 강의 출석 수강과 통신 수강 혼합 가능 온라인 도서관을 통한 e-북 & 연구자료 제공

미국의 뛰어난 복음주의 신학교 중의 하나인 GMU에서 신입생을 모집 합니다.

예장 국제총회 신학교인 GMU는 TRACS(미국 기독교학원 연합), ABHE(성경고등교육 연합), ATS(신학대학원 협의회) 정회원으로 미 연방 교육부가 인정하는 학위를 수여합니다. GMU는 학생들의 상담기술, 리더쉽, 신학적 지식과 목회 기술의 습득을 도우며, 전도, 선교, 제자양육의 열정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교가 등록된 미국 대학교 인준기관

입학 문의 이메일: [admissions@gm.edu](mailto:admissions@gm.edu) Tel: 714-525-0088  
 박사원: [www.dr.gm.edu](http://www.dr.gm.edu) 이메일: [doctoral@gm.edu](mailto:doctoral@gm.edu)

그레이스미션대학  
GRACE MISSION UNIVERSITY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 | [www.gm.edu](http://www.gm.edu)